

표지와 동일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 연구책임자  
정혜원 (본원 연구원)
- 연구보조자  
문용필 (서울시립대 석사과정)



# Contents

## 제1장 서론 \_ 01

## 제2장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보호요인 \_ 07

제1절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의 흐름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	9
1.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기반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9
2. 청소년분야에서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	11
제2절 가출 및 성매매 청소년과 위험요인, 보호요인 .....	13
1. 선행연구 고찰 .....	13
2.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	15
3. 연구 모형 .....	22

## 제3장 연구방법 \_ 23

제1절 자료수집 .....	25
제2절 변인의 측정 .....	28
1. 주요 변인 측정 .....	29
2. 종속변수 .....	33
제3절 자료분석 .....	34

**제4장 연구결과 \_ 37**

제1절 일반적 특성 .....	39
1. 개인적 특성 .....	39
2. 가족적 특성 .....	42
3. 성관계 및 성폭행 경험 .....	43
4. 가출 경험 등의 실태 .....	46
5.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실태 .....	55
제2절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생활실태 .....	57
1. 가족의 구조적 특징 .....	57
2. 학교생활 및 친구·선배 .....	62
3. 성관계·성폭행·성매매 .....	71
4. 가출 이후 상황 .....	80
제3절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보호요인 .....	87
1. 청소년 집단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차이 .....	87
2. 위험요인이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99
3.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101
4.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104
5. 위험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_ 111**

**참고문헌\_ 124**

**부 록\_ 131**

## 표 목차

표 2-1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4
표 3-1	24개 구별 표집 중학교 수	27
표 3-2	조사내용	29
표 3-3	종속변수	34
표 4-1	현재 상황 및 용돈	40
표 4-2	학교생활	41
표 4-3	가족의 교육수준, 근로, 기초수급권	42
표 4-4	가족유형, 주 양육자	43
표 4-5	첫 성관계 연령 및 대상 등	44
표 4-6	성폭행 연령 및 가해자	45
표 4-7	가출 횟수 및 계기	46
표 4-8	가출 횟수별 가출 연령, 기간, 거주지	49
표 4-9	가출 횟수별 귀가 이유 및 가출 이유	50
표 4-10	가출 당시 생활	52
표 4-11	가출 당시 도움	53
표 4-12	가출 이후 상황 변화	54
표 4-13	개인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56
표 4-14	학교 및 친구 관련 보호요인	56
표 4-15	가족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57
표 4-16	집단유형에 따른 아버지 교육수준 교차분석	58
표 4-17	집단유형에 따른 어머니 교육수준 교차분석	59
표 4-18	집단유형에 따른 아버지근로여부 교차분석	60
표 4-19	집단유형에 따른 경제수준 교차분석	60
표 4-20	집단유형에 따른 친부모 거주 여부 교차분석	61
표 4-21	집단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비교	62
표 4-22	집단유형에 따른 무단결석 교차분석	63
표 4-23	집단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어려움 교차분석	64
표 4-24	집단유형에 따른 친한 친구 교차분석	67
표 4-25	집단유형에 따른 친구 변인의 차이	67
표 4-26	집단유형에 따른 친한 선배 교차분석	69
표 4-27	집단유형에 따른 선배 변인의 차이	69

표 4-28	집단유형에 따른 성관계 경험 교차분석	71
표 4-29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관계 연령 차이비교	72
표 4-30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관계 대상 분포	73
표 4-31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관계 계기 분포	74
표 4-32	집단유형에 따른 성폭행 교차분석	74
표 4-33	가출 전과 후에 따른 성폭행	76
표 4-34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폭행 가해자 분포	76
표 4-35	성매매 경험 및 현황	78
표 4-36	집단유형에 따른 주변 성매매 친구 교차분석	79
표 4-37	성매매 경험에 따른 가출 경험 정도 교차분석	81
표 4-38	성매매 경험에 따른 가출 계기 교차분석	81
표 4-39	집단유형에 따른 아르바이트 여부 교차분석	82
표 4-40	집단유형에 따른 피해경험 교차분석	84
표 4-41	집단유형에 따른 기타 일탈 경험 교차분석	85
표 4-42	집단유형에 따른 심각한 비행 경험 교차분석	86
표 4-43	집단유형에 따른 개인 관련 위험요인 차이	88
표 4-44	집단유형에 따른 개인 관련 보호요인 차이 (1)	90
표 4-45	집단유형에 따른 개인 관련 보호요인 차이 (2)	92
표 4-46	집단유형에 따른 가족 관련 위험요인 차이	94
표 4-47	집단유형에 따른 가족 관련 보호요인 차이	95
표 4-48	집단유형에 따른 또래 관련 위험요인	97
표 4-49	집단유형에 따른 학교 관련 보호요인	98
표 4-50	위험요인의 영향	100
표 4-51	보호요인의 영향	102
표 4-52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	105
표 4-53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107



# 그림목차

■ 그림 2-1 ■ 연구모형 .....	22
■ 그림 3-1 ■ 연구과정도 .....	35
■ 그림 4-1 ■ 집단유형과 학교 생활 어려움 사이의 관계 지각도(perceptual map) ....	65
■ 그림 4-2 ■ 개인 관련 위험요인 .....	88
■ 그림 4-3 ■ 개인 관련 보호요인(1) .....	89
■ 그림 4-4 ■ 개인 관련 보호요인(2) .....	91
■ 그림 4-5 ■ 가족 관련 위험요인 .....	93
■ 그림 4-6 ■ 가족 관련 보호요인 .....	95
■ 그림 4-7 ■ 또래 관련 위험요인 .....	96
■ 그림 4-8 ■ 학교 관련 보호요인 .....	98
■ 그림 4-9 ■ 위험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	101
■ 그림 4-10 ■ 보호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	103
■ 그림 4-11 ■ 위험요인(가정방임)이 가출+성매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부모감독)의 조절효과 .....	108
■ 그림 4-12 ■ 위험요인(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사회유능감)의 조절효과 .....	109
■ 그림 4-13 ■ 위험요인(가정방임)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부모감독)의 조절효과 .....	110

## ■ 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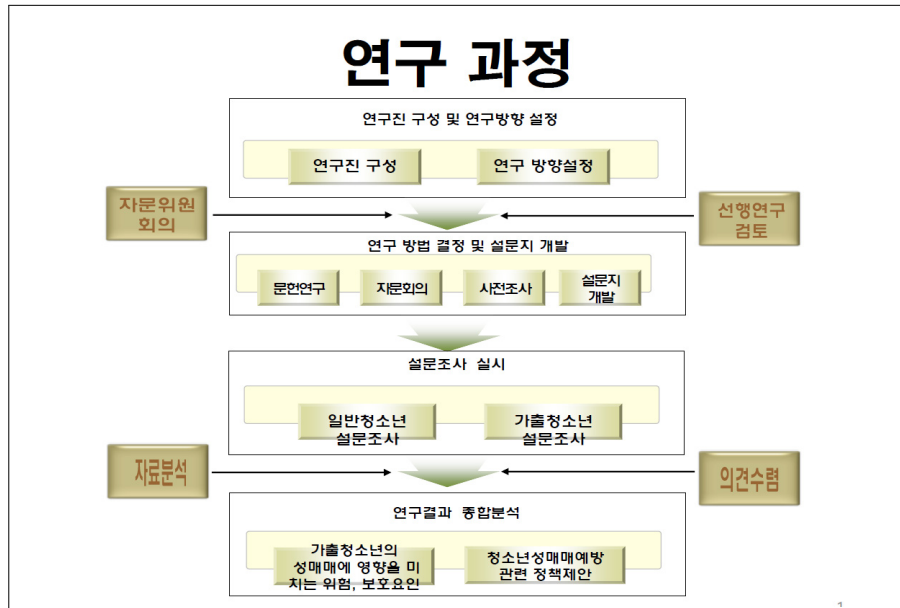
### □ 연구목적

- 최근 청소년 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영역 중 하나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임(김신희, 2008; 정혜원, 2009; 한상철, 2010; 정익중·김세원, 2011). 이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성매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련한 연구들은 초기단계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대상을 가출경험이 있는 십대여성으로 한정 한 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추출하고자 함. 첫째,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보호요인을 구성하고,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세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둘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가운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셋째, 위험요인이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이 조절하고 있는지를 검증함.
-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할 것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 일반 여자 청소년(비례규모확률표집)과 가출 여자 청소년(할당표집)으로 구분하여 표집
  - 총 1000부 (최종 분석대상 970부)

## □ 연구과정



■ 그림 1 ■ 연구과정도

## □ 연구결과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생활’, ‘친구·선배’, ‘가출’,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지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3가지 집단유형으로 나눈 후 비교를 하였음(집단유형: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집단, 가출만 경험한 집단,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

- 그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교육’, ‘근로경험’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집단별로 학교 어려움에 차이가 있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친구관계,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규칙,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공부가 학교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임.
- 집단별로 또래집단에 차이가 있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성매매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고, 가출경험만 있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비행친구가 많았음.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 유사한 또래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친구의 영향효과’인지 아니면 ‘친구의 선택효과’인지는 이후 종단적 자료 혹은 생애사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임. 또한 청소년들이 가출 혹은 성매매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친구’도 중요하지만 ‘선배’도 중요요인임.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서로 원해서 첫 성관계를 하기보다는 강제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첫 성관계 평균연령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성폭행 경험이 55.2%로 매우 높았음.
- 첫 성매매연령은 13세 이하 6명(6.2%), 14세 9명(9.3%), 15세 22명(22.7%), 16세 25명(25.8%), 17세 이상 35명(36.1%)으로 나타났음. 첫 성매매 경험은 주로 중학교시기인 14세에서부터 16세까지(57.8%)에서 많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초등학교시기인 13세 이하의 비율이 6.2%나 된다는 것임. 이는 홍봉선·남미애(2009)의 13세 이하 비율이 3%보다 높은 수치이며, 점차 청소년성매매가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 성매매 유입경로는 채팅 83명(84.7%)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 또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함(홍봉선·남미애, 2009; 보건복지부, 2008).
-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출경험이 많고, ‘가족’문제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가 많음.
-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성폭행, 폭행,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놀림당하기, 협박당하기 등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 집단안에서도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과 피해를 덜 당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피해를 더 당하는 집단안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위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집단별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불안,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부모학대, 부모방임, 가정불화, 성매매친구, 비행선배, 성매매선배, 가부장적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성주체성, 부모애착, 부모감독, 교사지지, 학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청소년성매매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본인의 성폭행 경험유무, 우울증이나 불안증세의 정도, 공격적 태도, 문제행동이 시작된 시기, 권위의식, 가정의 학대, 가정의 방임, 가정의 불화, 가출 전 피해경험정도, 가출 전 비행정도를 투입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하였음. 그 결과 주변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또래가 많을수록, 성폭행경험이 있을수록, 문제행동을 조기에 시작한 청소년일수록, 가정방임이 높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위험요인은 성매매를 유발시키는데 매우 중요요인임을 확인함.
- 청소년성매매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유능감, 부모(보호자)의 감독이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파악함. 또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증한 모형간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항을 통해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함. 그 결과 가정방임이 있다고 해도 주요한 타자의 결속과 보호가 있다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낮았음.

## □ 정책제언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은 빈곤과 생계의 부담으로 자녀 문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제한적임.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저소득계층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멘토제를 실시하여 긍정적 지지자를 마련해 주어야 함.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뿐만 아니라 첫 성매매 연령 또한 저연령화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성관련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까지로 확대해야 함. 또한 성폭행은 성매매와 하나의 연속성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은 물론 보호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이 연구들을 통해 추출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근거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또한 개별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성매매 유입예방 및 재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지원시설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개별단위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개별단위의 우수 프로그램들이 다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한국사회에서도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함.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검증된 프로그램들은 함께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제 1 장

## 서 론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1 장 서론

최근 청소년 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영역 중 하나가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이다(김신희, 2008; 정혜원, 2009; 한상철, 2010; 정익중·김세원, 2011). 위협요인과 보호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한 개인에게 노출된 위협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며, 다수의 위협요인에 노출될 경우 그 문제발생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나 위협요인에 대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위협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보호요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협요인과 상호작용하거나, 위협요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위협요인의 초기발생을 막는 형태로 작용한다(Coie et al., 1993; Fraser et al., 1999; 정익중·김세원, 2011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위협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협요인을 감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보호요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협요인에 대한 감소전략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증대전략 둘 중 하나만으로는 청소년 문제 예방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유지하게 하는 위협요인을 살펴본 연구, 탈성매매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 그리고 재유입 청소년의 보호요인 및 위협요인을 개인적 요인, 성매매 관련 요인, 관계적 요인, 시설요인으로 나누어서 제안한 연구, 여자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그것이다(홍봉선·남미애, 2007; 홍봉선·남미애, 2009; 이선희, 2009)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에 관련한 연구들은 초기단계로서, 엄밀

한 의미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부수적 차원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를 추출하기 보다는 위험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변인들을 추출하는 연구들이 많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요인만을 추출한 경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면접조사 혹은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한 경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한 경우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그리고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중 어떤 위험요인 혹은 어떤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대상을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으로 한정 한 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보호요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세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차원의 위험요인 연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은 어떤 위험요인은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가운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청소년 성매매 연구들에서는 보호요인에 대한 개념과 검증에서 불일치하거나 검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보호요인을 청소년 성매매의 또 다른 원인으로만 사고하고,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혹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호요인에 대해 사고하고 있더라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보호요인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이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이 조절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또한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 제 2 장

##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 · 보호요인

제1절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의 흐름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제2절 가출 및 성매매 청소년과 위험요인, 보호요인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2 장

#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제 1 절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의 흐름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 1.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기반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레질리언스(Resilience) 분야에 대한 연구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초기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연구는 소외된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어떤 아동·청소년들의 경우는 다중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타났을 것으로 예견되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Rutter, 1995). 이에 위협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 혹은 성공적인 대처로서 레질리언스 연구가 시작되었고, 역경 상황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Rutter, 1987).

또한 Rutter(1979;33)는 많은 연구들이 아동기의 비행, 정신과적 상태, 정신지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장애를 분석했고,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원인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Rutter(1990; 181~214)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이 아동에게 미치는 그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이들의 ‘과정(process)’, ‘조절(moderator)’ 개념의 이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으로서 보호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Rutter는 그의 많은 연구에서 제안했다.

그리고 레질리언스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연구자들도 위험 및 장애에 대한 취약성

(vulnerability)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후에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는 위협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 및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생태체계적 관점) 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레질리언스 관련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관심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다. 이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 정리를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위험요인(risk factor)이란 의학의 한 분야인 역학(epidemiology)<sup>1)</sup>에서 비롯된 통계적 개념이다. 위험요인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유성경 외, 2000 재인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험요인들은 학교중퇴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 일반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특징들이다. 위험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공통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정서 혹은 행동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다시 말해, 어떠한 특정 위험이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 혹은 정신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를 측정하였다(Fraser et al., 1999).

보호요인이란 위험요인(risk factor)들이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개인적 특성 또는 환경적 조건들이라면(Kirby and Fraser, 1997),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들은 위험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개인적 특성 또는 환경적 조건들이다.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을 위험요인에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위험을 뚫고 나가는가로 방향을 전환한 연구모형의 개념 전환 및 변화와 관련이 있다(Jessor, 1993).

이러한 보호요인들은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에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additive model), 혹은 보호요인을 통해 청소년 개인이 레질리언스를 가지게 됨으로써 위험요인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 위험요인의 영향을 줄여갈 수도 있다(interactive model)(유성경 외, 2000).

이처럼 보호요인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을 단일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화하여 이해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은 그들이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과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

1) 전염병의 발생·유행·종식에 미치는 자연적·사회적 모든 조건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 전염병의 예방이나 제압의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의학의 한 분과이다.



이다(정혜원, 2011).

다시 말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가 결합되어 청소년기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삶에서 더 많은 위험요인들이 나타날수록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Bry, McKeon and Pandina, 1982; Newcomb, 1995). 그러나 위험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문제행동에 맞서는 레질리언스(resiliency)를 기르는 특정 보호 요인들이 나타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Garmezy, 1985; Werner, 1994).

## 2. 청소년분야에서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최근 아동 및 청소년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위험요인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청소년 문제 예방 전략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행, 자살, 가출, 학업중단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예측하는 개인적 및 환경적 위험요인들이 중단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Hawkin et al., 1992; Hawkin et al., 1995; Herrenkohl et al., 2001; Pollard et al., 1999; 정익중·김세원, 2011 재인용). 이러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의 위험요인들은 개인, 가족,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 여러 발달영역 내에 존재한다.

Compas 와 그의 동료들은(1995) 청소년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낮은 지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이혼, 학대받은 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조건들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택호(2004)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은 통제 가능한 요인과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또한 한 개인에게 노출된 위험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며, 다수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 그 문제발생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누적될 때도 그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발달영역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위험요인들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개인이 다수의 위험요인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은 위험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에서도 잘 회

복해나가는 레질리언스(resilience)을 가진 하위집단들이 있으며, 문제나 위험요인에 대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보호요인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거나, 위험요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위험요인의 초기발생을 막는 형태로 작용한다(Coie et al., 1993; Fraser et al., 1999; 정익중·김세원, 2011 재인용).

이러한 레질리언스의 보호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레질리언스의 보호요인은 일찍이 위험영역에서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 중에서도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유능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강점관점의 연구가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상준, 2006; 이상준, 2011 재인용)

청소년과 관련된 레질리언스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레질리언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요인을 주로 개인적 심리적 특성에서 찾았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자율성, 자기조절감 등이 가장 대표적인 개인적 심리적 특성들이다. 그러나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요인도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지지나 주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Fonagy, Steele, Higgitt and Target, 1992; Masten and Garmezy, 1985; 강현아, 2010 재인용).

청소년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들이 어떻게 국내외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경험적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dd and Shahar(2008)은 208명의 길거리 청소년과 가출 보호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길거리 청소년의 탄력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나타난 강점으로 자아정체감과 기관의 이해, 자기가치, 가치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요청한 59명의 길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력성의 예측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삶의 위협행동과 절망, 사회적 연결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w et al., 2001)

Haight, Finet, Bamba and Helton(2009)의 질적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출신의 청소년들 중 미혼모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업학교에 진학하였거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청소년들이 레질리언스가 높다고 정의하였다. 그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그들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적 지지와 자신의 아이와 모성을 중시하는 가

치관으로 밝혔다.

또한 한상철(2009)은 청소년 성행동을 위험행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위험요인으로 성충동, 감각추구성향, 소극적 대처, 포래압력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는 적극적 대처전략, 부모의 감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확인되었다.

## 제 2 절 가출 및 성매매 청소년과 위험요인, 보호요인

### 1. 선행연구 고찰

홍봉선·남미애(2007)는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유지하게 하는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5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첫 번째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개인요인으로는 발달심리학적 특성, 성태도, 소비적·물질적 욕구지향, 자아존중감을, 두 번째 가정요인으로는 가정학대, 역기능적 가족, 가출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학교요인으로는 학업성적, 학교의 민주성, 교사에 대한 애착 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요인들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변에 비행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 가담률이 높을수록 성매매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에 대한 애착은 성비행(이성과의 성관계, 성매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성매매 문제는 여성의 도덕적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 전반의 성문화 및 의식체계(이중적 성윤리, 향락문화, 물질만능주의, 성의 상품화), 청소년 하위문화(청소년의 역기능적 성문화와 소비문화), 성산업 업주 및 중간 매개자 집단 등이 성매매 관계를 조장, 강화시키는 강화 체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봉선·남미애(2009)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탈성매매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재유입청소년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개인적 요인, 성매매 관련 요인, 관계적 요인, 시설요인으로 나누어서 제안하고 있다.

표 2-1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구분	탈성매매		재유입	
	보호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험요인
개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에 대한 희망</li> <li>- 인내심</li> <li>- 학교졸업에 대한 의지</li> <li>- 직업의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동성</li> <li>- 학교중퇴</li> <li>- 빈곤문제</li> <li>- 가출해서 생활비가 없을 때</li> <li>- 어린 시절부터 다중 위험에 노출됨</li> <li>- 적절한 놀이 및 스트레스 해소방법 모름</li> <li>- 적절한 아르바이트 찾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열망</li> <li>- 성숙</li> <li>- 자신을 버티고 지탱하는 힘</li> <li>- 한번의 성공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을 쉽게 벌려는 생각</li> <li>- 돈과 자유, 놀이에 대한 향수</li> <li>- 정신건강상의 어려움</li> <li>-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준비없음</li> </ul>
성매매 관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대한 허용성 낮음</li> <li>- 성행동에 대한 통제력 높음</li> <li>-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낮음</li> <li>- 성매매횟수 적음</li> <li>- 첫 성매매 나이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대한 허용성 높음</li> <li>- 성행동에 대한 통제력 낮음</li> <li>-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높음</li> <li>- 성매매 횟수 많음</li> <li>- 첫 성매매 나이가 적음</li> <li>- 성매매 초기단계에 적절한 외부 도움 받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기간 및 횟수가 적음</li> <li>- 성매매로 인한 임신, 성병, 폭력 등 심각한 위기 경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지속기간 길</li> <li>- 인터넷상의 무차별적 유혹</li> <li>-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높음</li> </ul>
관계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지지(시설친구, 남자친구, 실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잦은 친구들의 유혹</li> <li>- 가출 시 성매매 경험 있는 또래만남</li> <li>- 도움도 주면서 이용하고 착취하는 또래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li> <li>- 가족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분리와 관계유지</li> <li>- 주변의 긍정적 시선과 기다려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약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위험한 사회적 관계라도 유지하고자 함</li> <li>- 주변의 낙인</li> <li>- 부정적인 가족관계의 유지</li> </ul>
시설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에서의 적절한 통제(외출조절)</li> <li>-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쉼터</li> <li>- 자신에게 맞는 쉼터 및 실무자 발견</li> <li>- 실무자 측의 심리적 여유와 인내</li> <li>- 사법처리과정에 도움 줄때</li> <li>- 자립을 위한 지원금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과의 초기 신뢰관계 구축 못하고 이탈됨</li> <li>- 시설에 대한 정보부족</li> <li>- 시설에의 접근성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순간에 시설에 입소</li> <li>- 반복적, 지속적 교육과 지원</li> <li>-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자기살보기</li> <li>-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li> <li>- 시설생활로 인한 성매매 위험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게 맞는 시설 찾지 못함</li> <li>- 시설생활이 잘 맞지 않음</li> <li>- 안정적이지 못한 시설 분위기</li> </ul>

홍봉선·남미애(2009), <표VII-1> <표VII-2> 재구성

여성가족부(2010)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정연구에 의하면 탈성매매의 보호요인으로는 자기행동에 대한 자각과 탈성매매 사고 경향, 미래에 대한 꿈과 계

획,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탈성매매의 위험요인으로서는 성에 대한 높은 허용성과 성매매에 대한 가치의 둔감화,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부정적 자기상,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 손쉬운 고소득에 대한 환상과 성매매 재유입 용이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선희(2009)은 여자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노동경험, 성매매경험이 있는 또래, 또래의 지지가 성매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범죄피해, 부정적 노동경험 등과 같은 위험요인과 영적안녕(종교), 또래의 지지 등과 같은 보호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방법론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요인을 추출한 경우, 두 번째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면접조사 혹은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추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한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보호요인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또 다른 원인으로만 사고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을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고하고 있지만, 검증과정에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봄으로써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고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상호작용개념을 포함한 보호요인에 대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레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을 재설정하면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 및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생태체계적 관점) 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신희, 2008; 정혜원, 2009; 한상철, 2010; 정익중·김세원, 2011).

이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개념을 포함한 보호요인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위험요인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은 다양한 수준에서 탐색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위험요인들 중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어떤 요인은 제거할 수도 감소시킬 수도 없는 요인들도 있다.

때문에 예방 및 개입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위험요인의 속성을 잘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검증하여 이후 실제적인 성매매 예방과 전략 구성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차원의 위험요인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일관되게 발견하고 있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그 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위험요인의 양과 청소년문제행동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위험요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인가? 어떠한 위험요인은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험요인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예언력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유성경 외, 2000).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위험요인들 중에서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추출하였다.

### (1) 개인과 관련된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우울불안,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이 있다. 가출 청소년은 가출한 성인이나 노숙인보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가출 청소년의 길거리 생활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경험이 된다(Whitbeck et al., 2007). 특히 가출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DeMan, 2000; Unger et al., 1998).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가출 후 더욱 증폭된다(Whitbeck et al., 2007). 정경은 등(2008)은 우울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가출청소년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조성희·박소영, 2010 재인용).

또한 Loeber와 Dishion(1983)은 공격성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청소년 초기의 공격성은 그 후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Farrington, 1978).

### (2) 가족과 관련된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영역에서의 위험요인으로는 학대, 방임, 가정불화가 있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등은 청소년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의존대상이 없어진다는 점과, 성숙한 독립체로서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이 문제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된다(정익중 외, 2006; Baron, 2003; Ostrowsky and Messner, 2005). 청소년들은 신체·정서·성적인 학대경험 그리고 방임으로 인해 신체·정신건강, 심리·정서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명진·조주연·최문경, 2007).

Silbert(1980)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60% 정도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Schissel과 Fedec(1999)은 어린 시절 가족외상이 청소년성매매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남미애·홍봉선, 2009 재인용).

방임<sup>2)</sup>은 그 영향이 학대에 비하여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은 다양하고 장기간 지속된다(Perry, Cowell & Schick, 2000; 박명숙·송사리, 2011 재인용). Belknap(2007, /Chesney-Lind and Rodriguez, 1983 참조)는 아동을 착취하고 방치하는 가정환경을 여자 청소년 일탈을 촉진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본다. 여자 청소년들은 감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로 인해 가출로 내몰린다(Chesney-Lind, Morash, & Stevens, 2008; Chesney-Lind & Shelden, 2004; Schaffner, 2006). 가출을 통해 많은 여자 청소년들은 포르노, 생존을 위한 성매매, 마약 거래와 같은 비정상적 생존 방식에 노출되고, 약물 중독, 갱단 및 불량 청소년과의 접촉,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Chen, tyler, Whitbeck, & Hoyt, 2004; Schaffner, 2006).

### (3) 또래와 관련된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또래의 존재 여부에 있다.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

---

2) 과거에 방임은 학대의 하위범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학대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김신희, 2008)

에서는 비행친구들과 접촉할 때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혹은 모방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아 비행친구는 가장 중요한 비행의 원인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Akers, 1985; War and Stafford, 1991; Matsueda and Anderson, 1998; 이성식, 1999; 노성호, 2006).

이러한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또래가 있을 경우 성매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모방을 통해 성매매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 (4) 비행 및 성 관련 위험요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행 및 성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비행피해, 비행가해, 성폭행 등이 있다. 남미애(2001)는 임신, 성병,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성매매 경험이 높으며, 비행 및 성관련 피해가 다른 변인에 비해 성매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은 비행에 더 많이 노출되어 쉽게 비행에 개입되고 경찰에 구속되는 확률이 높다(Barrett, 1998; 남미애·홍봉선, 2009 재인용). 그 외에도 남미애(2001)에 따르면 성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행과 성 관련 피해경험이었는데, 즉 약물경험이 높을수록, 성폭행 경험이 많을수록, 경찰구속이 많을수록 청소년 성매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영신(2006)은 성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적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사회적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 2) 보호요인

연구자들은 위험에 대한 강조는 결핍에 대한 강조일 뿐이며, 예방 전략은 보호요인을 기르는 데 집중함으로써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들을 다루지는 않고 너무 위험요인들에만 치중하고 있거나, 위험요인의 근원을 다루지는 않고 보호요인을 증진시키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를 대처하는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과 전략을 계획하려면 두 요인들의 동적 특성과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Pollard, Hawkins, and Arthur, 1999).

이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Searach Institute(1998)<sup>3)</sup>의 설문



지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유성경과 그의 동료들의(1999) 연구를 근거로 하여 보호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 (1) 개인영역과 관련된 보호요인

개인영역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사회유능감, 성역할, 성주체성, 가부장적 의식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Kidd(2008)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연관성, 안정적인 애착 등의 보호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뉴욕시와 토론토에 거주하는 208명의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닥친 위험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출 청소년들의 위험과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임을 밝혔다. 또한 김준호·김은경(1995)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에게서만 낮은 자아존중감과 성비행이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거나 흥분하기 쉬우며, 위험스러운 행위를 좋아하고, 단순하고 쉬운 일을 즐겨하며, 정신적 사고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비교적 화를 잘 참아내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소 복잡하고 진취적인 일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스스로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의 의도와 기대를 이해하게 되며, 즉각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욕구,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기만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기광도, 2011 재인용).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아통제력이 강한 청소년이라면 거리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성매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청소년이 가출이라는 어려운 사회구조적 환경 내에서도 성매매

---

3) Searach Institute는 미국 청소년 실태를 대규모로 조사하고 있으며(Profiles of Student Life), 특히 보호요인의 개념을 발달적 강점(developmental assets)으로 설명하고 있다.

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거리생활 과정에서 어떤 성역할이나 성주체성 그리고 가부장적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 성매매 유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주체성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을 하는 관념적·실천적 총체이다. 이러한 성주체성이 있을 경우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심적 부담과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다고 한다(홍봉선, 2010).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의식이란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른 성 이데올로기로서 성에 따른 규범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지배적인 신념체계이다. Barret(1985)는 가부장제가 현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제가 이데올로기인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지배적인 사고방식, 신념체계로서 사회의 재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가부장제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숙경, 1995).

김은정(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성지식이 전무하거나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몸에 대해 무관심하며, 성매매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하고, 성관계 혹은 남녀 관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미흡하고, 가부장적 성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2) 가족 관련 보호요인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있다<sup>4)</sup>. 사회유대이론은 주위사람들과의 애정적 결속과 같은 유대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부모나 학교 등의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 동기를 통제함으로써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다. 특히 사회유대이론은 한국 사회에서 보다 잘 적용되어 왔으며, 국내의 연구에서 이 설명 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김상원, 2007; 이성식, 1995; 정혜원, 2009 재인용).

사회유대이론을 주창한 Hirschi(1969)는 사람들이 사회적 법률 준수행위를 하도록 하는 네 가지 유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일탈을 저지르는 확률이 적어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유대의 첫 번째 요소는 중요한 타자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다. 애착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

---

4) 이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사회유대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여기서 부모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자라 할 수 있다.

정적 결속, 존경심, 동일시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감정적 혹은 정서적 요소로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유대에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 요소는 관여(commitment)이다. 관여는 비용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관례적 행동에 투자한 것을 잃을 위험을 말한다. 세 번째는 관례적 행동에 대한 참여(involvement)이다. 네 번째는 신념(belief)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란 사회 가치의 체계와 규범에 대한 동의와 인정이다.

이 중에서 애착은 사회유대 요소들 중에서 가장 각광받아 왔다(Demuth and Brown, 2004; McLeod et al., 1994; Smith and Stern, 1997; 기광도·이희길, 2002; 김두섭·민수홍, 1996; 김정옥박경규, 2002; 정소희, 200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유대 요소들 중에서 친밀한 타자와의 애착을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중요한 타자에 대한 애착(attachment)의 개념을 국내에서는 중요한 타자와의 애정, 그리고 감독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중요한 타자와의 애정은 애착으로, 중요한 타자와의 결속에 근거한 내적 보호는 감독(monitoring)으로 측정할 것이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나 감독 등 부모의 양육태도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주요한 요인들이다.

Zahn(2007)은 문헌 검토를 통해 부모의 감시가 여자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Cernkovich and Giordano (1987)의 연구도 부모의 높은 지지가 특히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낮추는 데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작동한다고 밝혔다.

### (3) 학교 관련 보호요인

학교 관련 보호요인으로는 학교만족도와 교사지지가 있다. 교사지지는 교사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Jacobsen, 1986; 조성희·박소영, 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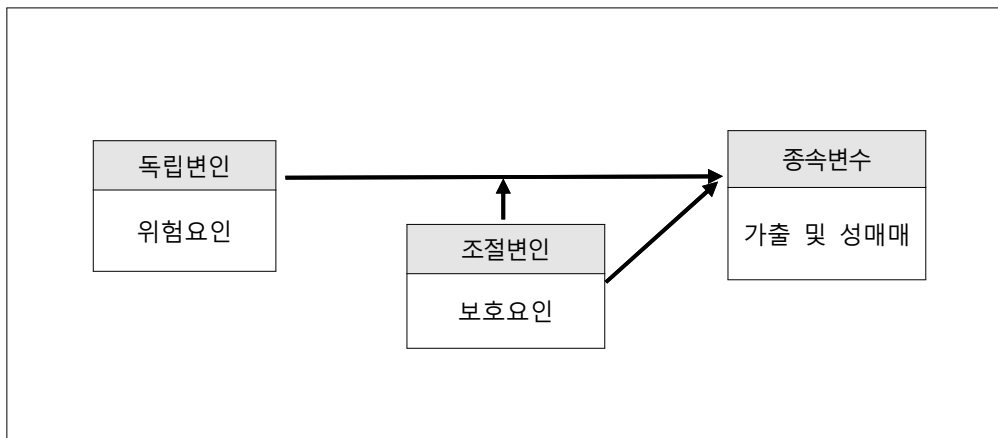
교사지지는 부모지지 혹은 친구지지만큼 가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Germcazy(1993)는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관이나 교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모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외부적 지지체계로서 청소년발달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만(1991)도 교사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요인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었다.

또한 관련 학자들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적 성취감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Badgley, 1984; Seng, 1989; Boritch, 1997). 민

무숙·김인숙(1999)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생활의 만족도 등의 요인이 낮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성비행이 높다고 한다.

### 3. 연구 모형

앞서 논의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가출 및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에 미치는 주효과와 위험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에 미치는 주효과가 일정한 조건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출 및 성매매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탐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에 미치는 주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가출 및 성매매를 기준으로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집단’, ‘가출만 경험한 집단’,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눈 후, 어떤 개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 다항로지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위험요인이 가출 및 성매매에 미치는 주효과를 개별 보호요인이 어떻게 조절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 제 3 장

## 연구방법

제1절 자료수집

제2절 변인의 측정

제3절 자료분석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3 장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제 1 절 자료수집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을 구성한 이후에는 자문회의와 실무자들의 검토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이후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표현의 명확성, 반응하기 어려운 문항 유무, 질문의 순서효과, 질문지 시행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집하였다.

첫 번째로 일반 청소년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다.

일반 청소년의 모집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sup>5)</sup>. 이를 위해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집락표집법(Multi-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우선 서울시 지역구를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한 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1권역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5) 홍봉선·남미애(2010)연구에 의하면 첫 성매매 연령이 15~16세인 경우가 50% 였다. 이에 가출 청소년들의 회고식 질문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송파구, 2권역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3권역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4권역은 은평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5권역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6권역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로 구분하였다. 이후 6개 권역별 중학교 3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권역별 표본수 할당 후 목표 표본수에 따른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권역 규모에 따라 층화를 한 후, 규모비례 확률표집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을 적용하여, 일정 수의 중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다음 3단계로 추출된 반의 여학생 모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 1단계 : 6개 권역별 학생수 비례에 따른 지역별 층화

- 1) 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통계자료(서울시 교육청)
- 2) 6개 권역별 중학교 3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권역별 표본수 할당
- 3) 6개 권역별 목표 표본수에 따른 학교수 결정
  - : 1개 학교에서 1개 학급 전원을 조사하므로 6개 권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25명)를 기준으로 학교수 결정

· 2단계 : PPS(규모비례확률표집법)에 의한 학교 추출

- 1) 6개 권역에 각각 할당된 학교추출
- 2) 6개 권역의 학교별 중학교 3학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
- 3) 6개 권역별 중학교 리스트 정렬
- 4) 6개 권역별 중학교 3학년 학생수 누적
- 5) 6개 권역별 전체 중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6)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추출

· 3단계 : 조사대상 학급 추출

- 1) 추출된 학교 3학년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학급 무작위 추출



2) 학교 사정에 따라 임의 추출된 경우도 있음

· 4단계 : 대체학교 추출

- 1)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학교 방문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를 대체학교로 결정하여 대체
- 2) 학교 거절을 고려해 사전에 2순위 3순위 대체학교 추출

이러한 표집방법과 표집과정을 거쳐, 전체 총 20개의 학교가 최종표집 학교로 선발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에서 4개, 2권역에서 3개, 3권역에서 3개, 4권역에서 3개, 5권역에서 4개, 6권역에서 3개 학교가 최종표집으로 선발되었다.

【표 3-1】 24개 구별 표집 중학교 수(목표 표본수 600명)

구분	중학교 수	권역별 표본 수	표집 학급 수
전체	20개교	600명	39학급
1권역	4개교	100명	8학급
2권역	3개교	100명	6학급
3권역	3개교	100명	6학급
4권역	4개교	100명	5학급
5권역	4개교	100명	8학급
6권역	3개교	100명	6학급

일반 청소년의 조사시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전달하여 협조를 구했다.

그 이후 설문조사 일정을 확정된 후, 설문조사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개별 학급으로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거된 설문 총 600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3부를 제외한 총 587부를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 가출 청소년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가출경험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여자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집되었다. 가출 청소년의 자료수집은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모집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표집이 아닌 비확률표집을 하였다. 이를 위해 거리, 보호관찰소, 청소년

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으로 나누어서 할당표집하였으며, 오버샘플링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리 청소년’은 가출청소년 밀집지역<sup>6)</sup>에 근거하여 7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조사하였다. 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7월 14일 본조사에 앞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실시했던 가출청소년 아웃리치를 참여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연구원과 조사원들이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차원에서 이동쉼터와 일시쉼터의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했으며, 이동쉼터와 일시쉼터 아웃리치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실시에 앞서, 가출경험이 있거나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관찰 규모를 면접과 전화를 통해 조사한 후, 규모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위기교육센터’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위의 절차를 통해 수집된 설문 총 400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383부를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자료는 위와 같은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총 970부, 일반 청소년 587부와 가출 청소년 383부를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제 2 절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설문내용, 전문가 및 실무자의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3-2>과 같다.

---

6) 일시쉼터와 이동쉼터는 가출 청소년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중계동, 노원, 수유, 수요일에는 천호, 목요일에는 동대문, 금요일에는 시흥동, 신림동에서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다.

Ⅰ 표 3-2 Ⅰ 조사내용

구분		설문내용
사회인구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지내고 있는 곳, 연령, 성별, 보호자 거주지, 학생여부</li> <li>• 가족구성 형태, 용돈, 비행 형제자매, 보호자 직업, 보호자 학력, 경제수준</li> </ul>
개인 및 학교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사회유능감</li> <li>• 학교생활 만족도, 선망친구, 교사지지, 학교생활 어려움</li> <li>• 우울·불안, 가출 충동, 반사회적 인지, 공격성, 문제행동 조기시작, 권위행동</li> <li>• 성역할, 성주체성, 무단결석</li> </ul>
가족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애착, 부모감독,</li> <li>• 학대, 방임, 가정불화</li> </ul>
성적 피해	성경험 (위험요인)	• 성경험, 첫 성관계 나이, 첫 성관계 대상, 첫 성관계 계기
	조건만남 (원조교제)	• 주변 조건만남 경험, 조건만남 경험여부, 가출 이전 조건만남 경험, 가출 이후 조건 만남시작시기, 첫 조건만남 나이, 조건만남 이유, 조건만남 통로
	성폭행 피해(위험요인)	• 성폭행, 첫성폭행 나이, 첫성폭행 가해자, 첫성폭행대응
가출	가출(위험요인)	• 가출 경험, 가출 횟수, 가출 기간, 가출 계기, 가출시 어려움, 가출시 도움
	가출 횟수별	• 가출시기, 가출기간, 가출 후 거주, 가출 후 귀가이유, 가출이유
	가출 이후 생활	• 가출 후 생활비, 가출 후 상황변화, 가출 후 생활비 해결, 가출 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일해 본 업종
친구·선배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 친한 친구 수, 친밀감, 비행친구, 비행친구에 대한 감정, 성매매 친구
		• 친한 선배 수, 비행선배, 성매매선배
기타	위험요인	• 비행피해, 비행가해

특히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 1. 주요 변인 측정

### 1) 위험요인

#### (1) 우울불안

우울불안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우울한 경우가 많다”, “나는 잠을 설치는 편이다”, “나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 .860$  이다.

#### (2) 공격성

공격성은 다른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에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를 한다”, “만일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는 반드시 되받아친다”,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면 나는 언제나 맞서 싸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우는 편이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Cronbach's  $\alpha = .822$ 이다.

### (3)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은 “나는 어려서부터 문제되는 행동 때문에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이었다”, “초등학교 때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부모님(가족)이 학교에 불려간 적이 종종 있다”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736$ 이다.

### (4) 권위

권위라는 것은 정당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선배의 명령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측정으로 “나는 선배가 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에 따른다”,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나와 친한 선배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다”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658$ 이다.

### (5) 학대

학대는 부모나 가족에 의해 청소년이 경험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그리고 정서적 폭력을 의미하며, “부모님(가족)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거나 심하게 욕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미워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가끔 나를 너무 무섭게 대하신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906$ 이다.

### (6) 방임

방임이란 주양육자의 양육태만이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임을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별로 확인을 안 하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술을 마셔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어라 하지 않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 기를 살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꾸중하지 않으신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906$ 이다.

다”의 8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862$ 이다.

### (7) 가정불화

가정불화는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외적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운다”,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825$ 이다.

## 2) 보호요인

### (1) 사회유능감

사회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환경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신숙, 2011). Katz 와 MacLellan(1997)은 사회적 유능감은 또래나 또는 성인과 만족스러운 호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이혜원, 2005; 이신숙, 2011 재인용).

그러므로 사회유능감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 “나는 말썽이 될 만한 일이나 사람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한다”, “나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운다”, “나는 건강을 잘 돌본다(예: 몸에 좋은 음식 먹기, 규칙적인 운동 하기, 하루에 세 끼 식사하기)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요소측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640$  이다.

### (2)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에 자기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라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는 역코딩을 하였고, Cronbach's

$\alpha = .804$ 이다.

### (3) 자기통제

자기통제력이란 순간만족이나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Cronbach's  $\alpha = .627$ 이다.

### (4) 법에 대한 태도

법에 대한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세어야 한다”, “용감하고 스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법이나 규율을 어길 수 있다”, “내가 필요하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약간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 .811$ 이다.

### (5) 성주체성

성주체성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피임하자고 말할 수 있다”, “이성친구가 원치 않은 성접촉을 시도할 때 끝까지 못하게 할 자신이 있다”, “사귀는 사람이 스킨십을 요구한다면 싫어도 들어줄 수 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행동만 할 것이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귀는 사람이 스킨십을 요구한다면 싫어도 들어줄 수 있다”는 역코딩하였다. Cronbach's  $\alpha = .600$ 이다.

### (6) 가부장적 의식

가부장적 의식이란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른 성 이데올로기로서 성에 따른 규범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지배적인 신념체계이다. 이에 가부장적 의식은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638$ 이다.

### (7)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주요한 타자와의 애착이며, “부모님(가족)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

(가족)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가족)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가족)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alpha = .927$ 이다.

#### (8)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주요한 타자와의 결속과 보호를 의미하며,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904$ 이다.

#### (9)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교사로부터 보호와 위로 그리고 애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측정은 “나는 학교 선생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alpha = .833$ 이다.

#### (10) 친구친밀감

친구친밀감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alpha = .819$ 이다.

## 2. 종속변수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추출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Ⅱ 표 3-3 Ⅱ 종속변수

변수	가출	성매매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	○
가출 경험만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경우	○	×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	×	×

### 제 3 절 자료분석

이 연구는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분포와 실태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의 구조적 특징’ ‘학교생활’ ‘친구’ ‘선배’ ‘성매매’ 등을 중심으로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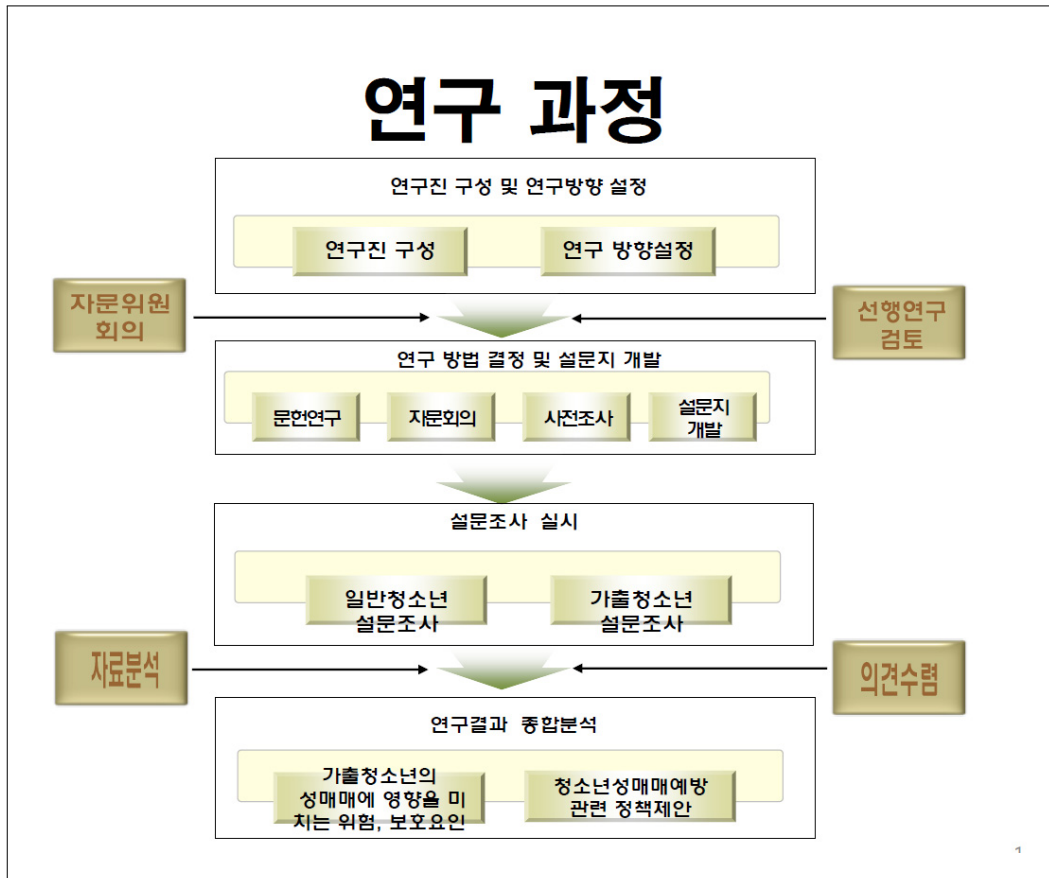
세 번째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이 조절할 수 있는지 다항로지분석을 한 후, 추정된 적합값( $\hat{y}$ )을 통해 선형회귀추정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8.0과 STATA 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연구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 연구 과정



|| 그림 3-1 || 연구과정도



# 제 4 장

## 연구결과

제1절 일반적 특성

제2절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생활실태

제3절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보호요인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일반적 특성

###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 가운데 현재 상황 및 용돈을 살펴보면 <표 4-1>와 같다. 총 925명 중 670명(72.4%)이 학생, 255명(27.6%)이 학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아닌 경우에(총 255명), 초등학교 졸업 21명(7.0%), 중학교 중퇴 81명(27.0%), 중학교 휴학 7명(2.3%), 중학교 졸업 69명(23.0%), 고등학교 중퇴 58명(19.3%), 고등학교 휴학 8명(2.7%), 고등학교 졸업 9명(3.0%)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중퇴가 81명(27.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 현재 상황 및 용돈

항목		구분	명(%)
현재 상황		계	925(100)
		학생	670(72.4)
		학생 아님	255(27.6)
	학생 아님	계	255(100)
		초등학교 졸업	21(7.0)
		중학교 중퇴	81(27.0)
		중학교 휴학	7(2.3)
		중학교 졸업	69(23.0)
		고등학교 중퇴	58(19.3)
		고등학교 휴학	8(2.7)
고등학교 졸업	9(3.0)		

항목	구분	
1주일 용돈	계	970(100.0)
	0원	142(14.6)
	1~10,000원 미만	369(38.0)
	10,000~30,000원 미만	210(21.6)
	30,000~50,000원 미만	69(7.1)
	50,000~100,000원 미만	37(3.8)
	100,000~600,000원 미만	64(6.6)
	필요할 때 마다	79(8.1)

1주일 용돈의 분포를 살펴보면, 0원 142명(14.6%), 1~10,000원 369명(38.0%), 10,000~30,000원 210명(21.6%), 30,000~50,000원 69명(7.1%), 50,000~100,000원 37명(3.8%), 100,000~600,000원 64명(6.6%), 필요할 때마다 79명(8.1%)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과 같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 289명(30.7%), 보통 279명(29.6%), 불만족 373명(39.6%)으로 나타나 불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단결석은 406명(42.3%)이 있음, 553명(57.7%)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은 공부 525명(55.6%), 학교규칙 155명(16.4%), 친구관계 149명(15.8%),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56명(5.9%), 선후배 관계 14명(1.5%), 기타 14명(1.5%)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친구 수를 보면, 0명은 6명(0.6%), 1~5명은 531명(55.4%), 6~10명은 316명(32.6%), 11명 이상은 117명(12.1%)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 수는 1~5명 범위에서 531명(55.4%)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선망하는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는 교내활동 리더 114명(12.1%), 컴퓨터게임 능숙 10명(1.1%), 성적 상위권 170명(18.0%), 외모 182명(19.2%), 멋진 옷차림 30명(3.2%), 운동 1명(0.1%), 유머감각 102명(10.8%), 성격 284명(30.0%), 싸움 15명(1.6%), 돈 10명(1.1%), 이성친구가 있는 것 8명(0.8%), 노래 또는 춤을 잘 추는 것 10명(1.0%), 기타 10명(1.0%)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망하는 친구의 조건 중 성격 284명(30.0%), 외모 182명(19.2%), 성적 상위권 170명(18.0%)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친한 선배 수는 0명이 315명(36.7%), 1~5명 380명(44.3%), 6~10명 103명(12.0%), 11명 이상 60명(7.0%)으로 나타났다.

Ⅱ 표 4-2 Ⅱ 학교생활

명(%)

항목	구분	
학교생활 만족도	계	970(100.0)
	만족	289(30.7)
	보통	279(29.6)
	불만족	373(39.6)
무단결석	계	959(100.0)
	있다	406(42.3)
	없다	553(57.7)
학교생활 힘든 점	계	944(100.0)
	공부	525(55.6)
	학교규칙	155(16.4)
	친구관계	149(15.8)
	학교선생님관계	56(5.9)
	선후배관계	14(1.5)
	기타	14(1.5)
친한 친구 수	계	970(100.0)
	0명	6(.6)
	1~5명	531(55.4)
	6~10명 이하	316(32.6)
	11명 이상	117(12.1)
선망친구 조건	계	946(100.0)
	교내활동 리더	114(12.1)
	컴퓨터게임 능숙	10(1.1)
	성적 상위권	170(18.0)
	외모 출중	182(19.2)
	멋진 옷차림	30(3.2)
	운동	1(.1)
	유머감각	102(10.8)
	성격	284(30.0)
	싸움	15(1.6)
	돈	10(1.1)
	이성친구가 있는 것	8(.8)
	노래 또는 춤을 잘 추는 것	10(1.0)
	기타	10(1.0)
친한 선배 수	계	858(100.0)
	0명	315(36.7)
	1~5명	380(44.3)
	6~10명 이하	103(12.0)
	11명 이상	60(7.0)

## 2. 가족적 특성

가족적 특성은 <표 4-3>과 같다. 부모님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 이하 65명(8.6%), 고등학교 졸업이 329명(43.4%), 전문대학 졸업 19명(2.5%), 대학교 졸업 280명(36.9%), 대학원 졸업 66명(8.7%)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이하 71명(9.6%), 고등학교 졸업 386명(52.2%), 전문대학 졸업 12명(1.6%), 대학교 졸업 228명(30.9%), 대학원 졸업 42명(5.7%)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근로 여부에서 아버지는 724명(93.7%)이 일을 하고 있고, 49명(6.3%)이 일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536명(71.7%)이 일을 하고 있고, 212명(28.3%)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여부는 수급권자이다 175명(19.1%), 수급권자가 아니다 722명(78.8%), 모른다 19명(2.1%)으로 나타났다.

▮ 표 4-3 ▮ 가족의 교육수준, 근로, 기초수급권

		(명, %)	
항목	구분	아버지	어머니
교육 수준	계	759(100.0)	739(100.0)
	중학교 졸업 이하	65(8.6)	71(9.6)
	고등학교 졸업	329(43.3)	386(52.2)
	전문대학 졸업	19(2.5)	12(1.6)
	대학교 졸업	280(36.9)	228(30.9)
	대학원 졸업	66(8.7)	42(5.7)
근로	계	773(100.0)	748(100.0)
	일하고 있다	724(93.7)	536(71.7)
	일하고 있지 않다	49(6.3)	212(28.3)
기초 생활 수급 권자	계	916(100.0)	
	예	175(19.1)	
	아니요	722(78.8)	
	모른다	19(2.1)	

주 양육자수는 0명이 1명(0.1%), 1명이 345명(37.9%), 2명이 483(53.1%), 3명 이 62명(6.8%), 4명이 19명(2.1%)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수는 2명이 경우가 483(53.1%)명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 양육자는 부모 모두 392명(42.9%), 아버지 한 분 39명(4.3%), 어머니 한 분 178명(19.5%), 부모 한쪽이 계부모인 가정 2명(0.2%), 조부모 255명(27.9%), 친척 25명(2.7%), 시설 6명(0.7%), 기타 16명(1.8%)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



자는 부모 모두가 경우가 392명(42.9%)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부모 모두가 아닌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연구대상자가 178명(19.5%)으로 높게 나타났다.

Ⅰ 표 4-4 Ⅰ 가족유형·주 양육자

(명, %)

항목	구분	
주 양육자 수	계	970(100.0)
	0명	1(.1)
	1명	345(37.9)
	2명	483(53.1)
	3명	62(6.8)
	4명	19(2.1)
주 양육자	계	913(100.0)
	부모 모두	392(42.9)
	아버지 한 분	39(4.3)
	어머니 한 분	178(19.5)
	부모 한쪽이 계부모인 가정	2(.2)
	조부모	255(27.9)
	친척	25(2.7)
	시설	6(.7)
	기타	16(1.8)

### 3. 성관계 및 성폭행 경험

#### 1) 첫 성관계 연령 및 대상

성관계 실태는 <표 4-5>와 같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285명) 중에서 첫 성관계 연령은 13세 이하 24명(8.4%), 14세 57명(20.0%), 15세 69명(24.2%), 16세(중학교 3학년 기준) 80명(28.1%), 17세 이상 55명(19.3%)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대상은 이성친구 166명(57.2%), 선후배 81명(27.9%), 채팅상대 6명(2.1%), 조건만남에서 만난 사람 6명(2.1%), 친척 2명(0.7%), 가족 4명(1.4%), 낯선 사람 21명(7.2%), 이웃사람 4명(0.4%)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계기는 서로 원해서 93명(33.8%), 강제적으로 68명(24.7%),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84명(30.5%), 돈거래를 하고 5명(1.8%), 기타 25명(9.1%)으로 나타났다.

표 4-5 첫 성관계 연령 및 대상 등

(명, %)

항목	구분	
첫 성관계 연령	계	285(100.0)
	13세 이하	24(8.4)
	14세	57(20.0)
	15세	69(24.2)
	16세	80(28.1)
	17세 이상	55(19.3)
첫 성관계 대상	계	290(100.0)
	이성친구	166(57.2)
	선후배	81(27.9)
	채팅상대	6(2.1)
	조건만남에서 만난 사람	6(2.1)
	친척	2(.7)
	가족	4(1.4)
	낯선 사람	21(7.2)
	이웃사람	4(.4)
첫 성관계 계기	계	275(100.0)
	서로 원해서	93(33.8)
	강제적으로	68(24.7)
	술을 취해서 나도 모르게	84(30.5)
	돈거래를 하고	5(1.8)
	기타	25(9.1)

## 2) 성폭행 연령 및 가해자

성폭행 실태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성폭행 경험이 없는 경우는 830명(86.4%), 있는 경우는 131명(13.6%)으로 나타났고, 성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126명) 중에서 첫 성폭행 연령은 13세 이하 47명(37.3%), 14세 19명(15.1%), 15세 25명(19.8%), 16세(중3) 18명(14.3%), 17세 이상 17명(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첫 성폭행 피해연령이 13세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47명(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첫 성폭행 가해자는 친아버지 5명(3.5%), 양아버지 2명(1.4%), 친척 6명(4.3%), 이웃 주민 13명(9.2%), 친구 7명(5.0%), 선배 17명(12.1%), 낯선 사람 59명(41.8%), 채팅 혹은 조건만남에서 만난 남자 10명(7.1%), 기타 22명(15.6%)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낯선 사람이 59명(41.8%)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첫 성폭행 시 대응방법으로는 혼자만 알고 있음 36명(26.9%), 친한 친구와 상의 15명(11.2%), 가해자를 피함 16명(11.9%),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음 25명(18.7%),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25명(18.7%), 전문상담센터에 문의 3명(2.2%), 기타 14명(10.4%)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위 대응방법 중 혼자만 알고 있음이 36명(26.9%)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4-6 ■ 성폭행 연령 및 가해자

(명, %)

항목	구분	
성폭행 경험	계	961(100.0)
	없다	830(86.4)
	있다	131(13.6)
첫 성폭행 연령	계	126(100.0)
	13세 이하	47(37.3)
	14세	19(15.1)
	15세	25(19.8)
	16세	18(14.3)
	17세 이상	17(13.5)
첫 성폭행 가해자	계	141(100.0)
	친아버지	5(3.5)
	양아버지	2(1.4)
	친척	6(4.3)
	이웃주민	13(9.2)
	친구	7(5.0)
	선배	17(12.1)
	낯선 사람	59(41.8)
	채팅/조건만남에서 만난 남자	10(7.1)
기타	22(15.6)	
첫 성폭행 대응 (중복응답)	계	134(100.0)
	혼자만 알고 있음	36(26.9)
	친한 친구와 상의	15(11.2)
	가해자를 피함	16(11.9)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음	25(18.7)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25(18.7)
	전문상담센터에 문의	3(2.2)
	기타	14(10.4)

## 4. 가출 경험 등의 실태

### 1) 가출 횟수 및 계기

가출 횟수 및 계기는 <표 4-7>에서 보듯이,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9명(39.2%), 없는 경우가 587명(60.8%)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중에서 가출 횟수는 1회 35명(10.1%), 2~3회 65명(18.1%), 4~6회 78명(22.5%), 7회 이상 168명(48.6%)로 나타났다.

가출 계기는 부모님과과의 불화 72명(22.6%), 부모님의 무관심 15명(4.7%), 부모님의 폭력 4명(1.3%), 집이 어려워져서, 집이 싫어서 85명(26.7%),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100명(31.4%), 친구의 권유로 18명(5.7%), 학교 적응의 어려움 8명(2.5%), 독립하고 싶어서, 밖에 익숙해져서 14명(4.4%), 보육원에서 때려서 2명(0.6%)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 계기 중에서 '가족'과 관련 요인을 합산해 보면 55.3%로 과반수 이상이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7 ▣ 가출 횟수 및 계기

(명, %)

항목	구분	
가출 경험	계	966(100.0)
	있다	379(39.2)
	없다	587(60.8)
가출 횟수	계	346(100.0)
	1회	35(10.1)
	2~3회	65(18.1)
	4~6회	78(22.5)
	7회 이상	168(48.6)
가출 계기	계	318(100.0)
	부모님과과의 불화	72(22.6)
	부모님의 무관심	15(4.7)
	부모님의 폭력	4(1.3)
	집이 어려워져서, 집이 싫어서	85(26.7)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100(31.4)
	친구의 권유로	18(5.7)
	학교 적응의 어려움	8(2.5)
	독립하고 싶어서, 밖에 익숙해져서	14(4.4)
보육원에서 때려서	2(.6)	

## 2) 가출 횟수에 따른 변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 때, 최초의 가출이나 반복적인 가출이나에 따라 그 원인이나 횟수 그리고 가출 연령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출 횟수에 따라 가출 연령, 가출 기간, 가출 후 거주지, 귀가 이유, 가출 이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표4-8>, <표 4-9>과 같다.

가출시 연령은 첫 번째 가출 시 13세 이하 84명(23.0%), 14세 117명(32.0%), 15세 85명(23.2%), 16세(중학교 3학년) 58명(15.8%), 17세 이상 22명(6.0%)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가출 시 13세 이하 40명(12.3%), 14세 62명(19.1%), 15세 105명(32.4%), 16세(중학교 3학년) 66명(20.4%), 17세 이상 51명(15.7%)으로 나타났다. 가출을 세 번 이상 한 경우는 13세 이하 4명(1.4%), 14세 20명(7.0%), 15세 40명(14.0%), 16세(중학교 3학년) 87명(30.5%), 17세 이상 134명(47.0%)이 나타났다. 가출 연령을 가출 횟수에 따라 살펴보면, 첫 번째 가출시 14세가 117명(3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두 번째 가출 시는 15세가 105명(32.4%), 가출 세 번 이상 시에는 17세 이상이 134명(47.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출 횟수에 따른 가출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출 시 가출 기간은 1주일 미만 147명(44.3%), 1주~1개월 미만 117명(35.2%), 1~2개월 미만 30명(13.8%), 2~6개월 미만 24명(7.2%), 6개월 이상 14명(4.2%)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출 시 가출 기간은 1주일 미만 61명(21.9%), 1주~1개월 미만 88명(31.5%), 1~2개월 미만 69명(24.7%), 2~6개월 미만 34명(12.2%), 6개월 이상 27명(9.7%)으로 나타났다. 가출을 세 번 이상 했을 때 가출 기간은 1주일 미만 29명(11.8%), 1주~1개월 미만 35명(14.3%), 1~2개월 미만 35명(14.3%), 2~6개월 미만 73명(29.8%), 6개월 이상 73명(29.8%)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가출 당시에는 1주일 미만, 1주~1개월 미만의 비율이 높았고, 두 번째 가출 시 1주~1개월 미만, 1~2개월 미만의 비율이 높고, 세 번 이상 가출 시에는 2~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가출 횟수가 잦아질수록 가출 기간도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출 기간 동안 거주공간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 번째 가출 시 여관, 모텔, 달방 15명(3.8%), 원룸 5명(1.3%), 친구집 102명(26.0%), 선후배집 30명(7.7%), 친척집 9명(2.3%), 가출 팸 1명(0.1%), 쉼터 7명(0.4%), 찜질방·PC방 140명(35.7%), 빈집, 역전

등 노숙 33명(8.4%), 기타 50명(12.8%)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출 시에는 여관, 모텔, 달방 20명(5.1%), 고시원 4명(1.0%), 원룸 15명(3.8%), 친구집 70명(17.9%), 선후배집 28명(17.9%), 친척집 4명(1.0%), 가출팸 4명(1.0%), 쉼터 14명(3.6%), 찜질방·PC방 126명(32.3%), 빈집, 역전 등 노숙 20명(5.1%), 기타 85명(21.8%)으로 나타났다.

가출을 세 번 이상 했을 경우, 여관, 모텔, 달방 21명(5.4%), 고시원 3명(0.8%), 원룸 31명(8.0%), 친구집 42명(10.8%), 선후배집 24명(6.2%), 친척집 2명(0.5%), 가출팸 3명(0.8%), 쉼터 19명(4.9%), 찜질방·PC방 112명(28.8%), 빈집, 역전 등 노숙 13명(3.3%), 기타 119명(30.6%)으로 나타났다.

가출 횟수에 따라 살펴보면, 첫 번째 가출시 친구집 102명(26.0%), 찜질방, PC방 140명(35.7%)의 비율이 높고, 두 번째 가출 시 찜질방·PC방 126명(32.3%), 기타 85명(21.8%)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출 시 기타 119명(30.6%), 찜질방·PC방 112명(28.8%)의 비율이 높았다.

가출 후 귀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출 시 돈이 없어서 38명(9.7%), 가족이 보고 싶어서 31명(7.9%), 문제가 해결되어서 11명(2.8%),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44명(11.3%),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19명(4.9%),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 103명(27.9%), 친구·주위사람이 들어가라고 해서 93명(23.8%), 아직도 가출 중 4명(1.0%), 기타 42명(10.7%)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가출 시 돈이 없어서 25명(6.4%), 가족이 보고 싶어서 26명(6.7%), 문제가 해결되어서 8명(2.1%),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42명(10.8%),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13명(3.3%),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 101명(25.9%), 친구·주위사람이 들어가라고 해서 83명(21.3%), 아직도 가출 중 5명(1.3%), 기타 87명(22.3%)으로 나타났다.

세 번 이상 가출 시 돈이 없어서 16명(4.1%), 가족이 보고 싶어서 22명(5.7%), 문제가 해결되어서 7명(1.8%),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22명(5.7%),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11명(2.8%),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 71명(18.3%), 친구·주위사람이 들어가라고 해서 35명(19.6%), 아직도 가출 중 35명(9.0%), 기타 127명(32.8%)으로 나타났다. 귀가 이유는 대체로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 라는 응답이 많았고, 가출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 4-8 가출 횟수별 가출 연령, 기간, 거주지

명(%)				
항목	구분	첫 번째 가출	두 번째 가출	가출 세 번 이상 (가장 최근 가출 기준)
가출 나이	계	366(100.0)	324(100.0)	285(100.0)
	13세 이하	84(23.0)	40(12.3)	4(1.4)
	14세	117(32.0)	62(19.1)	20(7.0)
	15세	85(23.2)	105(32.4)	40(14.0)
	16세(중학교 3학년)	58(15.8)	66(20.4)	87(30.5)
	17세 이상	22(6.0)	51(15.7)	134(47.0)
가출 기간	계	332(100.0)	279(100.0)	245(100.0)
	1주일 미만	147(44.3)	61(21.9)	29(11.8)
	1주~1개월 미만	117(35.2)	88(31.5)	35(14.3)
	1~2개월 미만	30(13.8)	69(24.7)	35(14.3)
	2~6개월 미만	24(7.2)	34(12.2)	73(29.8)
	6개월 이상	14(4.2)	27(9.7)	73(29.8)
가출 후 거 주 지	계	392(100.0)	390(100.0)	389(100.0)
	여관, 모텔, 달방	15(3.8)	20(5.1)	21(5.4)
	고시원	-	4(1.0)	3(.8)
	원룸	5(1.3)	15(3.8)	31(8.0)
	친구집	102(26.0)	70(17.9)	42(10.8)
	선배배집	30(7.7)	28(17.9)	24(6.2)
	친척집	9(2.3)	4(1.0)	2(.5)
	가출 팸(가출 패밀리)	1(.1)	4(1.0)	3(.8)
	쉼터	7(.4)	14(3.6)	19(4.9)
	찜질방·PC방	140(35.7)	126(32.3)	112(28.8)
	빈집·역전 등 노숙	33(8.4)	20(5.1)	13(3.3)
	기타	50(12.8)	85(21.8)	119(30.6)

가출 횟수에 따른 가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출 시 부모님이 싫어서 23명(5.9%), 부모님이 싸워서 9명(2.3%), 부모님이 욕하거나 때려서 24명(6.1%),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7명(1.8%), 부모님이 나에게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24명(6.1%),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4명(1.0%),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9명(2.3%),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4명(1.0%), 친구나 선배 등 주변사람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1명(0.3%),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49명(12.5%),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37명(9.5%),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2명(0.5%),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9명(2.3%),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4명(1.0%), 공부가 부담이 돼서 10명(2.6%),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123명(31.5%), 기타 52명

(13.3%)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출 시 가출 이유는 부모님이 싫어서 22명(5.7%), 부모님이 싸워서 10명(2.6%), 부모님이 욕하거나 때려서 16명(4.1%),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7명(1.8%), 부모님이 나에게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9명(2.3%),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6명(1.6%),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6명(1.6%),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3명(0.8%), 친구나 선배 등 주변사람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1명(0.3%),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45명(11.7%),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35명(9.1%),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4명(1.0%),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8명(2.1%),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3명(0.8%), 공부가 부담이 돼서 5명(1.3%),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116명(30.1%), 기타 90명(23.1%)으로 나타났다.

■ 표 4-9 ■ 가출 횟수별 귀가 이유 및 가출 이유

(명, %)

항목	구분	첫 번째 가출	두 번째 가출	가출을 세 번이상 (가장 최근 가출 기준)
귀가 이유	계	391(100.0)	390(100.0)	387(100.0)
	돈이 없어서	38(9.7)	25(6.4)	16(4.1)
	가족이 보고 싶어서	31(7.9)	26(6.7)	22(5.7)
	문제가 해결되어서	11(2.8)	8(2.1)	7(1.8)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44(11.3)	42(10.8)	22(5.7)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19(4.9)	13(3.3)	11(2.8)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	103(27.9)	101(25.9)	71(18.3)
	친구·주위사람이 들어가라고 해서	93(23.8)	83(21.3)	76(19.6)
	아직도 가출 중	4(1.0)	5(1.3)	35(9.0)
	기타	42(10.7)	87(22.3)	127(32.8)
가출 이유	계	391(100.0)	386(100.0)	388(100.0)
	부모님이 싫어서	23(5.9)	22(5.7)	10(2.6)
	부모님이 싸워서	9(2.3)	10(2.6)	9(2.3)
	부모님이 욕하거나 때려서	24(6.1)	16(4.1)	11(2.8)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7(1.8)	7(1.8)	8(2.1)
	부모님이 나에게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24(6.1)	9(2.3)	11(2.8)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4(1.0)	6(1.6)	3(0.8)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9(2.3)	6(1.6)	5(1.3)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4(1.0)	3(0.8)	2(0.5)
	친구나 선배 등 주변사람 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1(0.3)	1(0.3)	-



항목	구분	첫 번째 가출	두 번째 가출	가출을 세 번이상 (가장 최근 가출 기준)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49(12.5)	45(11.7)	39(10.1)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37(9.5)	35(9.1)	22(5.7)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2(.5)	4(1.0)	3(.8)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9(2.3)	8(2.1)	3(.8)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4(1.0)	3(.8)	-
	공부가 부담이 돼서	10(2.6)	5(1.3)	4(1.0)
	밖에 돌아다니는게 좋아서	123(31.5)	116(30.1)	120(30.9)
	기타	52(13.3)	90(23.1)	138(35.6)

세 번 이상 가출 시 가출 이유는 부모님이 싫어서 10명(2.6%), 부모님이 싸워서 9명(2.3%), 부모님이 욕하거나 때려서 11명(2.8%),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8명(2.1%), 부모님이 나에게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11명(2.8%),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3명(0.8%),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5명(1.3%),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2명(0.5%),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39명(10.1%),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22명(5.7%),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3명(0.8%),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3명(0.8%), 공부가 부담이 돼서 4명(1.0%),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120명(30.9%), 기타 138명(35.6%)으로 나타났다.

### (3) 가출 당시 생활

가출 시 어려움, 가장 힘든 점은 <표 4-10>와 같다. 가출시 어려움, 가장 힘든 점은 잠자는 것 106명(30.9%), 씻는 것 4명(1.2%), 먹는 것 31명(9.0%), 돈·금전적 어려움 151명(44.0%), 가족생각 14명(4.1%), 외로움·심리적 어려움 12명(3.5%), 성매매·폭력위협 3명(0.9%), 기타 22명(6.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돈·금전적 어려움이 151명(44.0%)으로 가장 힘든 점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생활비 조달방법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 34명(9.4%), 이전에 모아둔 돈 21명(5.8%), 구걸해서 모은 돈 3명(0.8%), 성매매로 번 돈 18명(5.0%),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은 돈 14명(3.9%), 친구의 도움으로 받은 돈 49명(13.5%), 선배의 도움으로 받은 돈 23명(6.3%),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 155명(42.7%), 가출 팸(가출 패밀리)의 도움 17명(4.7%), 기타 29명(8.0%)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생활비 조달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155명(42.7%)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 후 일한 경험은 있다 227명(60.2%), 없다 150명(39.8%)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일했던 장소는 일반 가게 156명(63.9%), 술집(호프집, 비디오방, 노래방 등) 23명

(9.4%), 유사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룸살롱, 키스방, 전화방 등) 17명(7.0%), 성매매 집결지 1명(0.4%), 기타 47명(19.3%)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가장 많이 일한 장소는 일반 가게로 156명(63.9%)이 응답하였다.

■ 표 4-10 ■ 가출 당시 생활

(명, %)

항목	구분	
가출 시 어려움, 가장 힘든 점	계	343(100.0)
	잡자는 것	106(30.9)
	씻는 것	4(1.2)
	먹는 것	31(9.0)
	돈금전적 어려움	151(44.0)
	가족생각	14(4.1)
	외로움심리적 어려움	12(3.5)
	성매매·폭력위험	3(.9)
	기타	22(6.4)
가출 후 생활비 조달	계	363(100.0)
	아르바이트로 번 돈	34(9.4)
	이전에 모아둔 돈	21(5.8)
	구걸해서 모은 돈	3(.8)
	성매매로 번 돈	18(5.0)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은 돈	14(3.9)
	친구의 도움으로 받은 돈	49(13.5)
	선배의 도움으로 받은 돈	23(6.3)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	155(42.7)
	가출 팸(가출 패밀리)의 도움	17(4.7)
기타	29(8.0)	
가출 후 일한 경험	계	377(100.0)
	있다	227(60.2)
	없다	150(39.8)
가출 이후 일했던 장소	계	244(100.0)
	일반 가게	156(63.9)
	술집(호프집, 비디오방, 노래방 등)	23(9.4)
	유사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룸살롱, 키스방, 전화방 등)	17(7.0)
	성매매 집결지	1(.4)
	기타	47(19.3)

7) 가출 팸은 가출 패밀리의 약어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사는 유사가족 형태이다.

가출 상황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 그리고 도움 내용은 <표 4-11>와 같다.

가족이 금전적 제공 42명(24.6%), 심리적 위안 37명(21.6%), 잠자리 및 먹을 것 42명(24.6%), 정보 제공 35명(20.5%), 일자리 소개 15명(8.8%)으로 도움을 주었다. 친구는 금전적 제공 13명(3.6%), 심리적 위안 60명(16.7%), 잠자리 및 먹을 것 112명(31.2%), 정보 제공 93명(25.9%), 일자리 소개 81명(22.6%)으로 도움을 주었다.

선후배는 금전적 제공 26명(9.7%), 심리적 위안 44명(16.4%), 잠자리 및 먹을 것 83명(30.9%), 정보 제공 54명(20.1%), 일자리 소개 62명(23.0%)으로 도움을 주었다. 선생님은 금전적 제공 3명(2.7%), 심리적 위안 47명(42.0%), 잠자리 및 먹을 것 11명(9.8%), 정보 제공 41명(36.6%), 일자리 소개 10명(8.9%)으로 도움을 주었다. 가출해서 만난 친구는 금전적 제공 15명(8.3%), 심리적 위안 26명(14.4%), 잠자리 및 먹을 것 50명(27.8%), 정보 제공 44명(24.4%), 일자리 소개 45명(25.0%)으로 도움을 주었다.

경찰은 금전적 제공 6명(6.6%), 심리적 위안 15명(16.5%), 잠자리 및 먹을 것 14명(15.4%), 정보 제공 52명(57.1%), 일자리 소개 4명(4.4%)으로 도움을 주었다. 보호시설(쉼터)에서는 금전적 제공 2명(1.4%), 심리적 위안 9명(6.3%), 잠자리 및 먹을 것 68명(47.9%), 정보 제공 47명(33.1%), 일자리 소개 16명(11.3%)으로 도움을 주었다. 1318전화는 금전적 제공 5명(6.4%), 심리적 위안 8명(10.3%), 잠자리 및 먹을 것 31명(39.7%), 정보 제공 28명(35.9%), 일자리 소개 6명(7.7%)으로 도움을 주었다. 채팅 남자는 금전적 제공 24명(37.5%), 심리적 위안 4명(6.3%), 잠자리 및 먹을 것 23명(35.9%), 정보 제공 6명(9.4%), 일자리 소개 7명(10.9%)으로 도움을 주었다.

■ 표 4-11 ■ 가출 당시 도움

(명, %)

항목		구분					
도움 준 사람, 기관	구분	금전적 제공	심리적 위안	잠자리 및 먹을 것	정보 제공	일자리 소개	계
	가족	42(24.6)	37(21.6)	42(24.6)	35(20.5)	15(8.8)	171(100)
	친구	13(3.6)	60(16.7)	112(31.2)	93(25.9)	81(22.6)	359(100)
	선후배	26(9.7)	44(16.4)	83(30.9)	54(20.1)	62(23.0)	269(100)
	선생님	3(2.7)	47(42.0)	11(9.8)	41(36.6)	10(8.9)	112(100)
	가출해서 만난 친구	15(8.3)	26(14.4)	50(27.8)	44(24.4)	45(25.0)	180(100)
	경찰	6(6.6)	15(16.5)	14(15.4)	52(57.1)	4(4.4)	91(100)
	보호시설(쉼터)	2(1.4)	9(6.3)	68(47.9)	47(33.1)	16(11.3)	142(100)
	1318 전화 <sup>*)</sup>	5(6.4)	8(10.3)	31(39.7)	28(35.9)	6(7.7)	78(100)
	채팅남자	24(37.5)	4(6.3)	23(35.9)	6(9.4)	7(10.9)	64(100)

연구대상자의 가출 이후 상황 변화는 다음 <표 4-12>과 같다. 건강상태는 건강이 나빠진 편이다 126명(33.3%), 보통 213명(56.3%), 좋아진 편이다 39명(10.3%)으로 나타났고, 마음이 나빠진 편이다 113명(30.0%), 보통 162명(43.0%), 좋아진 편이다 102명(27.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출 후 경제적 상황은 나빠진 편이다 109명(28.9%), 보통 197명(52.3%), 좋아진 편이다 71명(18.8%)으로 나타났고, 전반적 상황이 나빠진 편이다 117명(31.0%), 보통 180명(47.6%), 좋아진 편이다 81명(21.4%)으로 응답하였다.

가출 후 친구들 태도는 나빠진 편이다 34명(9.0%), 보통 270명(71.6%), 좋아진 편이다 73명(19.4%)으로 나타났고, 가족들 태도는 나빠진 편이다 108명(28.5%), 보통 155명(40.9%), 좋아진 편이다 116명(30.6%)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 태도는 나빠진 편이다 66명(17.6%), 보통 239명(63.7%), 좋아진 편이다 70명(18.7%)으로 나타났고, 학교다니기는 나빠진 편이다 133명(35.9%), 보통 193명(52.2%), 좋아진 편이다 44명(11.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심은 나빠진 편이다 72명(19.1%), 보통 225명(59.7%), 좋아진 편이다 80명(21.2%)으로 나타났다.

■ 표 4-12 ■ 가출 이후 상황 변화

(명, %)

항목		구분	
가출 이후 변화	건강	계	378(100.0)
		나빠진 편이다	126(33.3)
		보통	213(56.3)
		좋아진 편이다	39(10.3)
	마음	계	377(100.0)
		나빠진 편이다	113(30.0)
		보통	162(43.0)
		좋아진 편이다	102(27.1)
	경제적 상황	계	377(100.0)
		나빠진 편이다	109(28.9)
		보통	197(52.3)
		좋아진 편이다	71(18.8)
	전반적 상황	계	378(100.0)
		나빠진 편이다	117(31.0)
		보통	180(47.6)
		좋아진 편이다	81(21.4)

8) 1318전화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 안내 전화이다.

항목	구분	
친구들 태도	계	377(100.0)
	나빠진 편이다	34(9.0)
	보통	270(71.6)
	좋아진 편이다	73(19.4)
가족들 태도	계	379(100.0)
	나빠진 편이다	108(28.5)
	보통	155(40.9)
	좋아진 편이다	116(30.6)
주변사람들 태도	계	375(100.0)
	나빠진 편이다	66(17.6)
	보통	239(63.7)
	좋아진 편이다	70(18.7)
학교 다니기	계	370(100.0)
	나빠진 편이다	133(35.9)
	보통	193(52.2)
	좋아진 편이다	44(11.9)
자존심	계	377(100.0)
	나빠진 편이다	72(19.1)
	보통	225(59.7)
	좋아진 편이다	80(21.2)

## 5.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실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를 개인 관련 요인, 학교 및 친구 관련 요인, 가족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개인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13>에서 보듯이, 우선 개인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우울불안, 권위 등이 있다. 공격성은 1~4 범위에서 평균이 2.41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은 평균이 1.89, 우울불안은 평균이 2.35, 권위의 평균은 2.07이었다.

표 4-13 개인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항목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험요인	공격성	960	1.00	4.00	2.41	.67
	문제행동 조기시작	965	1.00	4.00	1.89	.74
	우울·불안	953	1.00	4.00	2.35	.67
	권위	964	1.00	4.00	2.07	.66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960	1.00	4.00	2.79	.40
	자기존중감	961	1.00	4.00	2.79	.52
	자기통제	961	1.00	4.00	2.38	.57
	법에 대한 태도	962	1.00	4.00	2.06	.56
	성역할	952	1.00	4.00	3.12	.57
	성주체성	956	1.00	4.00	3.31	.51
	가부장적 의식	955	1.00	4.00	2.21	.69

개인 관련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이다. 사회유능감은 1~4 범위에서 평균이 2.79, 자기존중감의 평균은 2.79이었다. 자기통제의 평균은 2.38, 법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2.06이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유능감이나 자기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통제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은 1~4 범위에서 평균이 3.12, 성주체성의 평균은 3.31, 가부장적 의식의 평균은 2.21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이나 성주체성은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부장적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교 및 친구 관련 보호요인의 실태는 <표 4-14>과 같다. 우선 학교 및 친구 관련 보호요인은 교사지지와 친구친밀감이다. 교사지지는 1~4 범위에서 평균이 2.55, 친구친밀감의 평균은 4.30이다.

표 4-14 학교 및 친구 관련 보호요인

항목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사지지	951	1.00	4.00	2.55	.76
친구친밀감	951	1.00	5.00	4.30	.68

마지막으로 가족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는 <표 4-15>와 같다. 우선 가족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부모학대, 방임, 가정불화 등이 있다. 부모학대는 1~4 범위에서

평균이 1.66, 방임의 평균은 1.51, 가정불화의 평균은 1.78이었다. 가족 관련 보호요인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으로 부모애착은 1~4 범위에서 평균이 2.80, 부모감독의 평균은 2.78이었다.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모두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5 ■ 가족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항목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험 요인	부모학대	961	1.00	4.00	1.66	.73
	방임	958	1.00	4.00	1.51	.58
	가정불화	959	1.00	4.00	1.78	.86
보호 요인	부모애착	955	1.00	4.00	2.80	.76
	부모감독	963	1.00	4.00	2.78	.80

## 제 2 절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생활실태

제 2절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구조적 특징’, ‘학교생활’, ‘친구·선배’, ‘가출’,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한다.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족의 구조적 특징, 학교생활, 친구·선배, 가출경험 등을 하고 있는지 알기위해서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3가지 집단유형으로 나눈 후, 비교를 통해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았다.

### 1. 가족의 구조적 특징

가족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손여부’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경우에 ‘부모의 교육’, ‘근로경험’, ‘경제수준’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16>, <표 4-17>, <표 4-18>와 같다. <표 4-16>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아버지 교육’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아버지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아버지 교육’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18명(22.5%),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7명(58.8%),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14명(17.5%),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1명(1.3%)이다. 그리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아버지 교육’이 중학교 졸업 34명(16.1%), 고등학교 졸업 130명(61.6%), 전문대학교 졸업 2명(0.9%), 대학교 졸업 40명(19.0%), 대학원 졸업 5명(2.4%)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아버지 교육’이 중학교 졸업 12명(2.6%), 고등학교 졸업 148명(32.2%), 전문대 졸업 17명(3.7%), 대학교 졸업 224명(48.7%), 대학원 졸업 59명(12.8%)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6 ▣ 집단유형에 따른 아버지 교육수준 교차분석

구분		아버지 교육수준					전체	카이자승값 (자유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집 단 유 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8(22.5)	47(58.8)	0(0)	14(17.5)	1(1.3)	80(100)	159.70(8) ***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34(16.1)	130(61.6)	2(0.9)	40(19.0)	5(2.4)	211(100)	
	가출 경험×	12(2.6)	148(32.2)	17(3.7)	224(48.7)	59(12.8)	460(100)	
	성매매 경험×							
전체		64(8.5)	325(43.3)	19(2.5)	278(37.0)	65(8.7)	751(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17>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어머니 교육’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어머니 교육’ 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머니 교육’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20명(27.8%),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38명(52.8%), 전문대 졸업인 경우가 2명(2.8%),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8명(11.1%),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4명(5.6%)이다.

그리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머니 교육’이 중학교 졸업이하 27명



(14.0%), 고등학교 졸업 130명(67.4%), 전문대 졸업 1명(0.5%), 대학교 졸업 30명(15.5%), 대학원 졸업 5명(2.6%)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머니 교육’이 중학교 졸업 이하 22명(4.7%), 고등학교 졸업 214명(46.0%), 전문대 졸업이 9명(1.9%), 대학교 졸업 188명(40.4%), 대학원 졸업 32명(6.9%)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머니 교육수준 또한 아버지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낮았다.

Ⅰ 표 4-17 Ⅰ 집단유형에 따른 어머니 교육수준 교차분석

명(%)

구분		어머니 교육수준					전체	카이자승값 (자유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20(27.8)	38(52.8)	2(2.8)	8(11.1)	4(5.6)	72(100)	96.83(8)***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27(14.0)	130(67.4)	1(0.5)	30(15.5)	5(2.6)	193(100)	
	가출 경험×	22(4.7)	214(46.0)	9(1.9)	188(40.4)	32(6.9)	465(100)	
	성매매 경험×							
전체		69(9.5)	382(52.3)	12(1.6)	226(31.0)	41(5.6)	730(100)	

\* p<.05 \*\* p<.01 \*\*\* p<.001

〈표 4-18〉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아버지 근로’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아버지 근로’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아버지가 일하는 경우가 73명(86.9%), 아버지가 일하지 않은 경우가 11명(13.1%)였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하는 경우가 195(91.1%), 아버지가 일하지 않은 경우가 19명(8.9%)이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가 일하는 경우가 450명(96.4%), 아버지가 일하지 않은 경우가 17명(3.6%)이다.

Ⅱ 표 4-18 Ⅱ 집단유형에 따른 아버지근로여부 교차분석

명(%)

구분		아버지근로		전체	카이자승값
		일하고 있음	일하고 있지 않음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73(86.9)	11(13.1)	84(100)	14.89(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95(91.1)	19(8.9)	214(100)	
	가출 경험×	450(96.4)	17(3.6)	467(100)	
전체		718(93.9)	47(6.1)	765(100)	

\* p<.05 \*\* p<.01 \*\*\* p<.001

〈표 4-19〉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가족의 ‘경제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가족의 ‘경제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형편이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2.1%), 가정형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명(71.9%), 가정형편이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명(26.0%)이었고, ‘가출 경험만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형편이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명(2.1%), 가정형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2명(75.4%), 가정형편이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명(19.4%)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모두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형편이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명(8.2%), 가정형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89명(87.2%), 가정형편이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6명(4.6%)이었다.

Ⅱ 표 4-19 Ⅱ 집단유형에 따른 경제수준 교차분석

명(%)

구분		경제수준			전체	카이자승값 (자유도)
		상	중	하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2(2.1)	69(71.9)	25(26.0)	96(100)	67.15(4) ***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4(5.2)	202(75.4)	52(19.4)	268(100)	
	가출 경험×	46(8.2)	489(87.2)	26(4.6)	561(100)	
전체		62(6.7)	760(82.2)	103(11.1)	925(100)	

\* p<.05 \*\* p<.01 \*\*\* p<.001

‘부모의 교육’, ‘근로 경험’, ‘경제 수준’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초기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강조한 데 비해서 최근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가족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바뀌었다<sup>9)</sup>. 하지만 청소년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과는 다르게 ‘성매매경험’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근로 경험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의미 있는 변인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20〉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친부모와 거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친부모와 거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19명(19.6%), 친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78명(80.4%)이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92명(33.3%),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187명(67.0%)이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450명(77.5%), 친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131명(22.5%)이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친부모와의 거주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0 ▮ 집단유형에 따른 친부모 거주 여부 교차분석

구분		친부모 거주 여부		전체	카이자승값
		함께 거주 함	거주 하지 않음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9(19.6)	78(80.4)	97(100)	221.51(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92(33.0)	187(67.0)	279(100)	
	가출 경험×	450(77.5)	131(22.5)	581(100)	
전체		561(58.6)	396(41.4)	957(100)	

\*  $p < .05$  \*\*  $p < .01$  \*\*\*  $p < .001$

9) 초기 연구들은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보다 많이 저지른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러 연구들의 결론은 자기보고식 자료를 사용할 경우 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elang et al., 1981; Sampson, 1986; Tittle and Meier, 1990). 국내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존재해 왔으며(김준호·노성호, 1989; 김준호·이성식, 1996; 기광도, 2003), 그 결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약하나 부모의 양육행위와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 2. 학교생활 및 친구·선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하루 일과 중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청소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주요한 사회환경이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주요한 환경인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다른 집단 유형의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학교생활 변인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1>, <표 4-22>, <표 4-23>과 같다.

<표 4-21>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학교만족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학교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집단유형별로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84,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34,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이 4.57이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1 ■ 집단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학교생활 만족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s test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3	2.84	1.64	94.25***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65	3.34	1.66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2	4.57	1.39		
합계		930	4.05	1.64		

\*  $p < .05$  \*\*  $p < .01$  \*\*\*  $p < .001$

<표 4-22>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무단결석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무단결석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가 92명(94.8%),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경우가 5명(5.2%)였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0명(87.3%),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경우가 35명(12.7%)였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가 68명(11.8%),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경우가 507명(88.2%)이다.

무단결석은 청소년들이 비행, 사회적 고립 또는 교육적 실패로 나아가게 하는 초기의 경고표시 중 하나이다(정혜원, 2010). 그런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초기 경고 초시라고 할 수 있는 무단결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2 ▣ 집단유형에 따른 무단결석 교차분석

구분		무단결석		전체	카이자승값
		있다	없다		
집단유형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92(94.8)	5(5.2)	97(100)	556.60(2)***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240(87.3)	35(12.7)	275(100)	
	가출경험×	68(11.8)	507(88.2)	575(100)	
전체		400(42.2)	547(57.8)	947(100)	

\* p<.05 \*\* p<.01 \*\*\* p<.001

〈표 4-23〉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학교 생활 어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학교 생활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공부’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40.2%), ‘학교규칙’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17명(18.5%), ‘친구관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26.1%),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8.7%), ‘선후배관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6.5%)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공부’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120명(47.1%), ‘학교규칙’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80명(31.4%), ‘친구관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23명(9.0%),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30명(11.8%), ‘선후배 관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0.8%)으로 나타났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공부’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363명(67.1%), ‘학교규칙’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57명(10.5%), ‘친구관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99명(18.3%),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16명(3.0%), ‘선후배관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1.1%)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과’가출 경험만이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제외하고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가출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규칙’을 학교생활의 힘든 점으로 손꼽았다.

▣ 표 4-23 ▣ 집단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어려움 교차분석

구분		학교 생활 어려움					전체	카이제곱값 (자유도)
		공부	학교규칙	친구관계	학교 선생님 관계	선후배 관계		
집 단 유 형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37(40.2)	17(18.5)	24(26.1)	8(8.7)	6(6.5)	92(100)	115.42(8)***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120(47.1)	80(31.4)	23(9.0)	30(11.8)	2(0.8)	255(100)	
	가출경험×	363(67.1)	57(10.5)	99(18.3)	16(3.0)	6(1.1)	541(100)	
	성매매경험×							
전체		520(58.6)	154(17.3)	146(16.4)	54(6.1)	14(1.6)	88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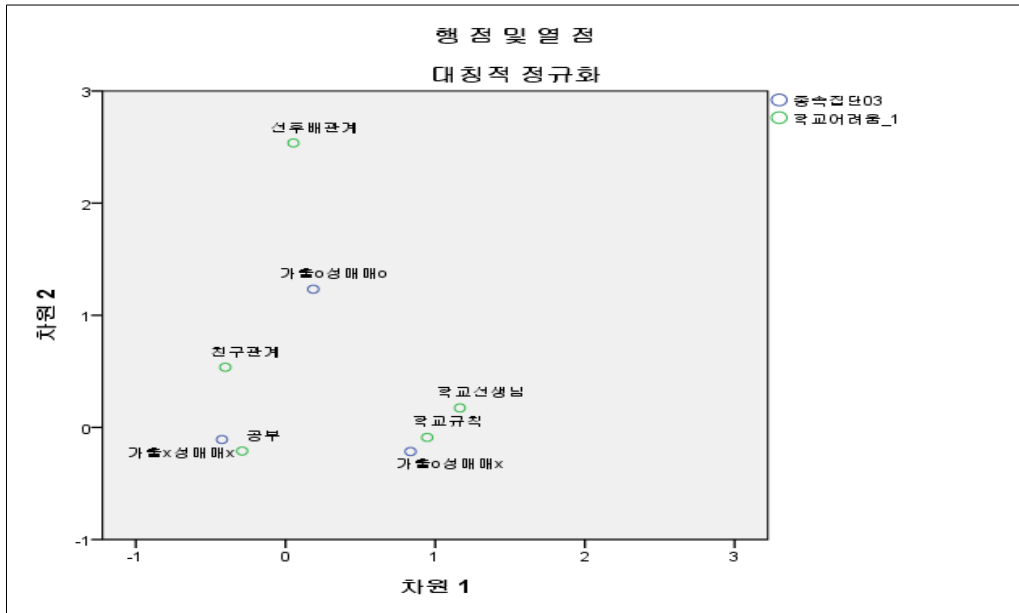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이에 추가적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집단유형’에 더 가까운지 구체적인 이미지맵을 통해 시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추가적으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sup>10)</su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 어려움 중에서 공부와 밀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가출 경험만 있는

10) 대응일치분석은 2차원 분할표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2차원상의 이미지맵으로 도식화시켜 주는 분석기법이다. 2차원의 설명력이 70% 이상은 되어야 행과 열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Koo, 2007; 정효선·윤혜현, 2011 재인용). 이에 집단유형과 학교 생활 어려움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차원 1(75.7%)과 차원 2(24.3%)에 도시적으로 표시한 누적 설명 분산은 100%로 나타나 유의적인 지각도상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규칙과 밀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친구 관계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 그림 4-1 ■ 집단유형과 학교 생활 어려움 사이의 관계 지각도(perceptual map)

이주영(2006)에 의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학교 규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율보다도 친구관계를 더 힘들어 하고 있었다. 또래관계는 어린 아동에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Parker와 Asher(1993)에 의하면 또래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대립, 갈등, 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교에 부적응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가출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들을 손쉽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sup>11)</sup>’이나 학교선생님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11) 푸코(1975)는 근대 권력이 지각이나 업무의 중단과 관련된 ‘시간’, 부주이나 태만에 관한 ‘행위’, 무례함과 반항적 ‘태도’, 수다나 건방짐 같은 ‘언어’, 버릇없는 자세나 불결과 같은 ‘신체’, 불순이나 음탕과 같은 ‘성욕’에 대한 훈육과 처벌을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한다(강보길, 1997: 43; 이주영, 2005 재인용).

이처럼 세 집단의 학교어려움이 상이하다는 것은 이들의 학교생활이 매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동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관계가 왜 힘든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표 4-21>, <표 4-22>, <표 4-23>, (그림 4-1)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가장 낮고 무단결석도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며,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친구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래가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면서 ‘친구’만큼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도 ‘친구’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친구’도 중요하지만 ‘선배’도 매우 중요하다. 정혜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거리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래는 단순히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래를 ‘친구’와 ‘선배’로 나누어서 각 집단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24>와 같다. <표 4-24>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친한 친구의 수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친한 친구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한 친구가 없다’가 응답한 응답자는 2명(2.1%), ‘친한 친구가 1명에서 5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5명(67.0%), ‘친한 친구가 6명에서 1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7명(17.5%), ‘친한 친구가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3명(13.4%)이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0.7%), ‘친한 친구가 1명에서 5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42명(50.9%), ‘친한 친구가 6명에서 1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88명(31.5%), ‘친한 친구가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7명(16.8%)이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명(0.3%), ‘친한 친구가 1명에서 5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16명(54.4%), ‘친한 친구가 6명에서 1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8명(35.8%), ‘친한 친구가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5명(9.5%)이다.



표 4-24 집단유형에 따른 친한 친구 교차분석

구분		친한 친구				전체	카이제곱값 (자유도)
		없음	1~5명	6~10명	11명 이상		
집단 유형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2(2.15)	65(67.0)	17(17.5)	13(13.4)	97(100)	24.76(6)***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2(0.7)	142(50.9)	88(31.5)	47(16.8)	279(100)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2(0.3)	316(54.4)	208(35.8)	55(9.5)	581(100)	
전체		6(0.6)	523(54.6)	313(32.7)	115(12.0)	957(100)	

\* p<.05 \*\* p<.01 \*\*\* p<.001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집단유형별로 친한 친구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비행 친구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성매매 친구의 수에는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5>과 같다.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친한 친구의 수는 5.95명,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친한 친구의 수는 7.47명,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친한 친구의 수는 6.17명이었다.

표 4-25 집단유형에 따른 친구 변인의 차이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s test
친한 친구	가출경험○ 성매매경험○(A)	96	5.95	6.52	4.27***	B)A·C
	가출경험○ 성매매경험×(B)	260	7.47	9.04		
	가출경험× 성매매경험×(C)	568	6.17	4.39		
합계		924	6.51	6.28		
비행 친구	가출경험○ 성매매경험○(A)	83	1.78	2.29	51.74***	B)C)A
	가출경험○ 성매매경험×(B)	217	2.73	4.17		
	가출경험× 성매매경험×(C)	436	0.34	2.07		
합계		736	1.20	3.07		
성매매 친구	가출경험○ 성매매경험○(A)	82	2.12	3.29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가출경험○ 성매매경험×(B)	191	0.89	2.03	68.86***	A)B)C
	가출경험× 성매매경험×(C)	423	0.03	0.25		
	합계	696	0.51	1.70		

\* p<.05 \*\* p<.01 \*\*\* p<.001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비행친구의 수는 1.78명,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비행친구의 수는 2.73명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 비행친구의 수는 0.3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는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 성매매친구의 수는 0.89명,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 성매매친구의 수는 0.03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성매매경험이 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출경험만 있는 집단’은 비행친구와 친한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26〉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친한 선배의 수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친한 선배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한 선배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명(14.4%), ‘친한 선배가 1명에서 5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8명(49.5%), ‘친한 선배가 6명에서 1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5명(15.5%), ‘친한 선배가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명(20.6%)이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한 선배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4명(12.2%), ‘친한 선배가 1명에서 5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25명(44.8%), ‘친한 선배가 6명에서 1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7명(20.4%), ‘친한 선배가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3명(22.6%)이다.

‘가출 경험이 없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친한 선배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63명(45.3%), ‘친한 선배가 1명에서 5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3

명(34.9%), ‘친한 선배가 6명에서 10명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0명(5.2%), ‘친한 선배가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85명(14.6%)이다.

표 4-26 집단유형에 따른 친한 선배 교차분석

구분		친한 선배				전체	카이제곱값 (자유도)
		없음	1~5명	6~10명	11명 이상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4(14.4)	48(49.5)	15(15.5)	20(20.6)	97(100)	132.75(6)***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34(12.2)	125(44.8)	57(20.4)	63(22.6)	279(10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263(45.3)	203(34.9)	30(5.2)	85(14.6)	581(100)	
	전체	311(32.5)	376(39.3)	102(10.7)	168(17.6)	957(100)	

\* p<.05 \*\* p<.01 \*\*\* p<.001

추가적으로 집단유형별로 친한 선배의 수, 비행 선배의 수, 성매매 경험 선배의 수에 차이가 있는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친한 선배의 수, 비행 선배의 수, 성매매 경험 선배의 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

표 4-27 집단유형에 따른 선배 변인의 차이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친한 선배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0	6.65	10.64	43.14 ***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49	6.66	9.17		
	가출경험× 성매매 경험×(C)		503	2.00	4.81		
	합계		842	3.88	7.47		
비행 선배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76	2.80	4.56	57.03***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188	2.52	3.86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353	0.20	0.97		
	합계		617	1.23	3.00		
성매매 선배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74	1.02	1.68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171	0.67	2.11	28.40***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346	0.00	0.00		
	합계	591	0.32	1.34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표 4-27>을 살펴보면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친한 선배의 수는 6.65명,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친한 선배의 수는 6.66명으로 유사하였고,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 친한 선배의 수는 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행 선배는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비행 선배의 수는 2.80명,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비행 선배의 수는 2.52명,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 비행 선배의 수는 0.2명으로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다. 성매매 선배는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성매매 경험 선배의 수는 1.0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성매매 경험 선배의 수는 0.67명,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 성매매 경험 선배의 수는 0명이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성매매경험이 있는 집단일 경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 혹은 선배가 많았다. 또한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행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비행 선배의 경우에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이 서로 유사한 집단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 유사한 또래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친구의 영향효과<sup>12)</sup>’인지 아니면 ‘친구의 선택효과<sup>13)</sup>’인지는 이후 종단적 자료 혹은 생애사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친구의 효과’만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정기원, 2007; 박현수·김준호, 2008; 이은주, 2009; Reitz et al., 2006; Vitaro et

12)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과 같이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에서는 비행과 비행친구의 관계를 친구영향효과(peer influence effect)로 해석한다. 즉, 비행친구 때문에 비행을 한다는 것이다.

13) 사회통제이론이나 개인성향이론에 의하면 비행친구는 비행행동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다. 이것을 비행친구의 선택효과라고 한다.

al., 2005). 위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들이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을 할 때 ‘친구’도 중요하지만 ‘선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연구할 때 ‘친구’뿐만 아니라 ‘선배’도 고려해야 할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성관계·성폭행·성매매

사춘기와 함께 성(sexuality)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다. 이에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성적 경험을 했는지 ‘성관계’, ‘성폭행’, ‘성매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성경험

〈표 4-28〉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성관계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성관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성관계경험이 있는 경우가 97명(100%),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0명(0%)이었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2명(62.1%),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105명(37.9%)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명(3.4%),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561명(96.6%)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4-28 ■ 집단유형에 따른 성관계 경험 교차분석

구분		성관계 경험		전체	카이자승값
		있다	없다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97(100)	0(0)	97(100)	554.55(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72(62.1)	105(37.9)	277(100)	
	가출 경험×	20(3.4)	561(96.6)	581(100)	
전체		289	666	955(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29〉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첫 성관계 연령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성관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집단유형별로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14.72,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15.61, ‘가출 경험도 없고 성매매 경험도 없는 집단’의 평균이 15.75였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가출 경험이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첫 성관계 평균연령이 14.72세로 가장 낮았고, ‘가출 경험이 없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첫 성관계 평균연령은 15.75세로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정서적으로 성교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9 ■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관계 연령 차이비교

구분		첫 성관계 연령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s test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0	14.72	1.84	10.51***	A < 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169	15.61	1.2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20	15.75	2.40		
합계		279	15.33	1.59		

\*  $p < .05$  \*\*  $p < .01$  \*\*\*  $p < .001$

〈표 4-30〉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첫 성관계 대상이 누구인지’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대상은 이성친구 39명(42.4%), 선후배 22명(23.9%), 채팅상대 4명(4.3%), 조건만남 대상 5명(5.4%), 친척 1명(1.1%), 가족 2명(2.2%), 낯선 사람 17명(18.5%), 이웃 2명(2.2%)이었다. 또한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대상은 이성친구 113명(65.7%), 선후배 52명(30.2%), 채팅상대 1명(0.6%), 조건만남 대상 0명(0%), 친척 1명(0.6%), 가족 1명(0.6%), 낯선 사람 3명(1.7%), 이웃 1명(0.6%)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대상은 이성친구 12명(60.0%), 선후배 5명(25.0%), 채팅상대 1명(5.0%), 조건만남 대상 0명(0%), 친척 0명

(0%), 가족 0명(0%), 낯선 사람 1명(0%), 이웃 1명(0%)이었다.

■ 표 4-30 ■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관계 대상 분포

구분		첫 성관계 대상							전체	
		이성 친구	선후배	채팅 상대	조건만남 대상	친척	가족	낯선 사람		이웃
집단 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39(42.4)	22(23.9)	4(4.3)	5(5.4)	1(1.1)	2(2.2)	17(18.5)	2(2.2)	92(10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13(65.7)	52(30.2)	1(0.6)	0(0)	1(0.6)	1(0.6)	3(1.7)	1(0.6)	172(100)
	가출 경험×	12(60.0)	5(25.0)	1(5.0)	0(0)	0(0)	0(0)	1(0)	1(0)	20(100)
전체		164(57.7)	79(27.8)	6(2.1)	5(1.8)	2(0.7)	3(1.1)	21(7.4)	4(1.4)	284(100)

〈표 4-31〉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첫 성관계 계기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계기는 서로 원해서 19명(21.8%), 강제적으로 32명(36.8%),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25명(28.7%), 기타 11명(12.6%)이었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계기는 서로 원해서 59명(36.0%), 강제적으로 32명(19.5%),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55명(33.5%), 기타 11명(12.6%)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계기는 서로 원해서 13명(68.4%), 강제적으로 2명(10.5%),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3명(15.8%), 기타 1명(5.3%)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서로 원해서 첫 성관계를 하기보다는 강제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한 경우가 많다. 또한 첫 성관계 평균연령도 매우 낮았다. 이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보여진다. 정혜원(2002)은 일탈 청소년들의 경우 첫 번째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미국의 젊은 여성의 25%가 첫 번째 성경험은 원치 않은 것이었고 순전히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해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첫 성관계 당시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요되었거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Alan Guttmacher Institute, 1999). 이에 다원화된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1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관계 계기 분포

명(%)

구분		첫 성관계 계기				전체
		서로 원해서	강제적으로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기타	
집 단 유 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9(21.8)	32(36.8)	25(28.7)	11(12.6)	87(10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59(36.0)	32(19.5)	55(33.5)	18(11.0)	164(100)
	가출 경험×	13(68.4)	2(10.5)	3(15.8)	1(5.3)	19(100)
전체		91(33.7)	66(24.4)	83(30.7)	30(11.2)	270(100)

## 2) 성폭행

〈표 4-32〉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성폭행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성폭행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명(55.2%), 성폭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43명(48.8%)이었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5명(16.3%), 성폭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231명(83.7%)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명(5.3%), 성폭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549명(94.7%)이다.

표 4-32 집단유형에 따른 성폭행 교차분석

명(%)

구분		성폭행 경험		전체	카이제곱값
		있다	없다		
집단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53(55.2)	43(48.8)	96(100)	177.34(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45(16.3)	231(83.7)	276(100)	
	가출 경험×	31(5.3)	549(94.7)	580(100)	
전체		129(100)	823(100)	952(100)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성폭행 경험이 55.2%로 매우 높았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관계와 성폭행, 그리고 성매매를 개념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연주, 2010; 윤선미, 2010; 정혜원, 2011). 기존의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55.2% 이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전과 가출 후 성폭행을 당한 경험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출 전의 성폭행경험이 가출 이후 성폭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가출 전과 가출 후의 성폭행 횟수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전과 후의 성폭행 횟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전 성폭행여부에 따라 가출 후 성폭행여부에 차이가 있는 지 교차분석을 해 보았다.〈표 4-33참조〉 그 결과 ‘가출 전에 성폭행 피해가 없었던 청소년’ 가운데 ‘가출 후 역시 성폭행 피해가 없는 경우’는 41명(71.9%)이고, ‘가출 후 성폭행 피해가 있는 경우’는 16명(28.1%)이었다. 그리고 ‘가출 전에 성폭행 피해가 있었던 청소년’ 가운데 ‘가출 후 성폭행 피해가 없는 경우’는 14명(43.8%), ‘가출 후 성폭행 피해가 있는 경우’는 18명(56.3%)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 전에 성폭행피해가 있었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출 후에 성폭행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조두순, 김순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성학대에 위협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저위험군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있으나, 성학대에 위협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출과 성매매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 전이나 가출 후 모두 ‘성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표 4-33 Ⅱ 가출 전과 후에 따른 성폭행

명(%)

구분		가출 후 성폭행피해		전체	카이자승값
		없다	있다		
가출 전 성폭행피해	없다	41(71.9)	16(28.1)	57(100)	6.89(1)*
	있다	14(43.8)	18(56.3)	32(100)	
전체		55(61.8)	34(38.2)	89(100)	

\* p<.05 \*\* p<.01 \*\*\* p<.001

〈표 4-34〉은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첫 번째 성폭행 가해자가 누구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첫 번째 성폭행 가해자는 친인척 6명(11.1%), 아는 사람 18명(33.3%), 낯선 사람 23명(42.6%), 채팅 대상자 혹은 조건만남 대상자 6명(11.1%), 기타 1명(1.9%)이었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첫 번째 성폭행 가해자는 친인척 5명(10.4%), 아는 사람 17명(35.4%), 낯선 사람 17명(35.4%), 채팅 대상자 혹은 조건만남 대상자 4명(8.3%), 기타 5명(10.4%)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없는 청소년’들의 첫 번째 성폭행 가해자는 친인척 2명(6.1%), 아는 사람 10명(30.3%), 낯선 사람 19명(57.6%), 채팅 대상자 혹은 조건만남 대상자 0명(0%), 기타 2명(6.1%)였다.

Ⅱ 표 4-34 Ⅱ 집단유형에 따른 첫 성폭행 가해자 분포

명(%)

구분		첫 성폭행 가해자					전체
		친인척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채팅남/ 조건남	기타	
집단 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경험○	6(11.1)	18(33.3)	23(42.6)	6(11.1)	1(1.9)	54(10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5(10.4)	17(35.4)	17(35.4)	4(8.3)	5(10.4)	48(100)
	가출 경험×	2(6.1)	10(30.3)	19(57.6)	0(0)	2(6.1)	33(100)
전체		13(9.6)	45(33.3)	59(43.7)	10(7.4)	8(5.9)	135(100)

### 3) 성매매

〈표 4-35〉는 성매매 관련 실태이다. 성매매 경험 여부에 대해서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61명(89.6%)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0명(10.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주변에서 성매매하는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587명(61.1%), 거의 없다(1~2명) 209명(21.7%), 보통이다(3~5명) 99명(10.3%), 다소 많다(6~10명) 40명(4.2%), 매우 많다(10명 이상) 26명(2.7%)이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N=97) 중에서, 첫 성매매 나이는 13세 이하 6명(6.2%), 14세 9명(9.3%), 15세 22명(22.7%), 16세 25명(25.8%), 17세 이상 35명(36.1%)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첫 성매매 경험이 주로 중학교 시기인 14세에서부터 16세까지(57.8%)에서 많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초등학교 시기인 13세 이하의 비율이 6.2%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홍봉선·남미애(2009)의 13세 이하 비율이 3%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가족부, 2008),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나이가 14~15세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해 2000년 36.4%이던 것이 2006년에는 46.0%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6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성에 대한 이슈와 문제는 청소년기에 그들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덜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뿐만 아니라 첫 성매매 연령 또한 저연령화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성관련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성폭행은 성매매와 하나의 연속성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는 성인이나 또래 남성에게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로 성매매를 경험하게 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N=100) 중에서, 가출 후 생활비가 없어서 68명(68.7%), 그냥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6명(6.1%),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6명(6.1%), 집안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1(1.0%),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3명(3.0%), 호기심에서 4명(4.0%), 용돈이 적어서 2명(2.0%), 주변 강요에 의해서 9명(9.1%)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 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성매매를 접하게 되는 연구대상자가 68명(68.7%)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그 결과가 같다. 김은실(1999)

등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맞물린 문제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배제는 유사하며, 이러한 배제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성매매 유입경로는 채팅 83명(84.7%), 노래방 1명(1.0%), 친구 소개 2명(2.0%), 선후배 소개 2명(2.0%), 보도방 2명(2.0%), 부킹(거리, 호프집, 나이트클럽 등) 4명(4.1%), 주변강요 3명(3.1%), 기타 1명(1.0%)으로 응답하였다.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83명(84.7%)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다(홍봉선·남미애, 2009; 보건복지부, 2008). 성매매 유입통로인 인터넷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 표 4-35 ■ 성매매 경험 및 현황

항목	구분	명(%)
성매매 경험	계	961(100.0)
	없다	861(89.6)
	있다	100(10.4)
주변 성매매 정도	계	961(100.0)
	전혀 없다	587(61.1)
	거의 없다(1~2명)	209(21.7)
	보통이다(3~5명)	99(10.3)
	다소 많다(6~10명)	40(4.2)
	매우 많다(10명이상)	26(2.7)
첫 성매매 나이	계	97(100.0)
	13세 이하	6(6.2)
	14세	9(9.3)
	15세	22(22.7)
	16세	25(25.8)
	17세 이상	35(36.1)
성매매 이유	계	99(100.0)
	가출 후 생활비가 없어서	68(68.7)
	그냥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6(6.1)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6(6.1)
	집안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1(1.0)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3(3.0)
	호기심에서	4(4.0)
	용돈이 적어서	2(2.0)
주변 강요에 의해서	9(9.1)	

항목	구분	
성매매 경로	계	98(100.0)
	채팅	83(84.7)
	노래방	1(1.0)
	친구 소개	2(2.0)
	선후배 소개	2(2.0)
	보도방	2(2.0)
	부킹(거리, 호프집, 나이트클럽 등)	4(4.1)
	주변 강요	3(3.1)
	기타	1(1.0)

친구는 청소년 관련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이에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주변의 성매매 친구’들이 어떤 분포에 차이가 있는 지 교차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36>과 같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주변에 성매매 친구가 전혀없는 경우가 7명(7.3%), 거의 없는 경우(1~2명)가 30명(31.3%), 보통인 경우(3~5명)가 31명(32.3%), 다소 많은 경우(6~10명)가 16명(16.7%), 매우 많은 경우(11명 이상)가 12명(12.5%)이다. 또한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의 가운데 주변에 성매매 친구가 전혀없는 경우가 10명(36.3%), 거의 없는 경우(1~2명)가 89명(32.0%), 보통인 경우(3~5명)가 52명(18.7%), 다소 많은 경우(6~10명)가 23명(8.3%), 매우 많은 경우(11명 이상)가 13명(4.7%)이다. 마지막으로 ‘가출경험도 없고 성매매경험도 없는 청소년’들 가운데 주변에 성매매 친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477명(82.4%), 거의 없는 경우(1~2명)가 86명(14.9%), 보통인 경우(3~5명)가 14명(2.4%), 다소 많은 경우(6~10명)가 1명(0.2%), 매우 많은 경우(11명 이상)가 1명(0.2%)이다.

표 4-36 집단유형에 따른 주변 성매매 친구 교차분석

구분	주변 성매매 친구					전체	카이자승값 (자유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1~2명)	보통이다 (3~5명)	다소 많다 (6~10명)	매우 많다 (11명 이상)		
집단 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7(7.3)	30(31.3)	31(32.3)	16(16.7)	12(12.5)	366.67(8)***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10(36.3)	89(32.0)	52(18.7)	23(8.3)	13(4.7)	
	가출 경험×	477(82.4)	86(14.9)	14(2.4)	1(0.2)	1(0.2)	
	성매매 경험×	585(61.4)	205(21.5)	97(10.2)	40(4.2)	26(2.7)	
전체						953(100)	

\* p<.05 \*\* p<.01 \*\*\* p<.001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주변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가출 이후 상황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성매매와 가출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이 연구에서는 ‘가출 이후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가출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출 경험 횟수 및 가출 계기 등

가출 이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사이에 가출 경험 횟수 및 가출 계기, 가출 어려움, 가출 이후 노동 등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7>는 가출 이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으로 구분한 후 ‘가출 경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가출 경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경험이 1번인 경우는 3명(3.1%), 가출경험이 2~3번인 경우 13명(13.5%), 가출경험이 4~9번인 경우 30명(31.3%), 가출경험이 10번 이상인 경우 50명(52.1%)이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가출경험이 1번인 경우는 32명(11.5%), 가출경험이 2~3번인 경우 51명(18.3%), 가출경험이 4~9번인 경우 74명(26.5%), 가출경험이 10번 이상인 경우 122명(43.7%)이다.

위의 결과, 성매매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매매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가출경험이 많았다. 또한 제1절에서 가출 경험이 많아질수록 가출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이 장기가출과정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4-37 성매매 경험에 따른 가출 경험 정도 교차분석

명(%)

구분		가출경험정도				전체	카이제곱값 (자유도)
		1번	2~3번	4~9번	10번 이상		
집단 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3(3.1)	13(13.5)	30(31.3)	50(52.1)	96(100)	7.93(3)*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32(11.5)	51(18.3)	74(26.5)	122(43.7)	279(100)	
	전체	35(9.3)	64(17.1)	104(27.7)	172(45.9)	375(100)	

\* p<.05 \*\* p<.01 \*\*\* p<.001

〈표 4-38〉는 가출 이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으로 구분한 후 ‘가출 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가출 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족문제 때문에 가출한 경우가 51명(56.7%), 친구 유혹 혹은 놓고 싶어서가 28명(31.1%), 기타 이유가 11명(12.2%)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문제 91명(40.8%), 친구 유혹 혹은 놓고 싶어서가 96명(43.0%), 기타 36명(16.1%)이었다.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문제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친구 및 놓고 싶어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 때문에 가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집으로 돌아가기가 더 힘들 가능성이 많았다.

표 4-38 성매매 경험에 따른 가출 계기 교차분석

명(%)

구분		가출 계기			전체	카이제곱값 (자유도)
		가족문제	친구 및 놓고 싶어서	기타		
집단 유형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51(56.7)	28(31.1)	11(12.2)	90(100)	6.51(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91(40.8)	96(43.0)	36(16.1)	223(100)	
	전체	142(45.4)	124(39.6)	47(15.0)	313(100)	

\* p<.05 \*\* p<.01 \*\*\* p<.001

〈표 4-39〉은 성매매경험에 따라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가출했을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로 ‘가출했을 때 아르바이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68명(71.6%)이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는 27명(28.4%)이었다. 그리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5명(57.2%),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는 116명(42.8%)이었다.

Ⅰ 표 4-39 Ⅰ 집단유형에 따른 아르바이트 여부 교차분석

구분		아르바이트		전체	카이자승값
		일한 경험 있음	일한 경험 없음		
집단유형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68(71.6)	27(28.4)	95(100)	6.11(1)*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155(57.2)	116(42.8)	271(100)	
전체		223(60.9)	143(39.1)	366(100)	

\*  $p < .05$  \*\*  $p < .01$  \*\*\*  $p < .001$

가출만 한 청소년들에 비해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혜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하기까지 끊임없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가출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바로 성매매로 유입하는 것은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성매매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가출의 어려움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1$ ). 이를 통해 성매매경험이 있든 없든 가출을 하면 ‘돈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가출 이후 비행 피해 및 비행

가출을 한 이후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과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 ‘가출 당시의 피해와 비행’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0〉과 같다. 우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성폭행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58명(62.4%), 성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5명(37.6%)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성폭행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222명(88.1%), 성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0명(11.9%)이었다.

둘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폭행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64명(68.1%),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0명(31.9%)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폭행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218명(87.9%),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0명(12.1%)이었다.

셋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70명(75.3%),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가 있는 청소년들은 23명(24.7%)이었다.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중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가 없는 청소년들은 226명(91.5%),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가 있는 가출 당시에 성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21명(8.5%)이다.

넷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심하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81명(86.2%), 심하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3명(13.8%)이다. 그리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심하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245명(98.8%)이고, 심하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명(1.2%)이었다.

다섯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협박을 당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74명(79.6%),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명(20.4%)이었다. 그리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중 가출 당시에 협박을 당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237명(96.3%),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명(3.7%)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성폭행, 폭행,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놀림당하기, 협박당하기 등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 집단 안에서도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과 피해를 덜 당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를 더 당하는 집단 안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위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4-40〉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가출 이후 청소년집단’ 내부에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위계질서 안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하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영(2006)의 연구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이주영(2006)은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 내부에서도 ‘날라리’, ‘양아치=깡치는 애’, ‘캐쉬줄=찐따’로 일정한 위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표 4-40 집단유형에 따른 피해경험 교차분석

구분		집단유형		전체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당시 성폭행피해 경험	없다	58(62.4)	222(88.1)	280(81.2)
	있다	35(37.6)	30(11.9)	65(18.8)
전체		93(100)	252(100)	345(100)
카이자승값(자유도)		29.41(1)***		
가출 당시 폭행피해 경험	없다	64(68.1)	218(87.9)	282(82.5)
	있다	30(31.9)	30(12.1)	60(17.5)
전체		94(100)	248(100)	342(100)
카이자승값(자유도)		18.50(1)***		
가출 당시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없다	70(75.3)	226(91.5)	296(87.1)
	있다	23(24.7)	21(8.5)	44(12.9)
전체		93(100)	247(100)	340(100)
카이자승값(자유도)		15.79(1)***		
가출 당시 심하게 놀림당하기	없다	81(86.2)	245(98.8)	326(95.3)
	있다	13(13.8)	3(1.2)	16(4.7)
전체		94(100)	248(100)	342(100)
카이자승값(자유도)		24.34(1)***		
가출 당시 협박당하기	없다	74(79.6)	237(96.3)	311(91.7)
	있다	19(20.4)	9(3.7)	28(8.3)
전체		93(100)	246(100)	339(100)
카이자승값(자유도)		25.05(1)***		

\* p<.05 \*\* p<.01 \*\*\* p<.001

〈표 4-41〉, 〈표 4-42〉는 가출을 한 이후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과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 ‘가출 당시의 비행’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이다. 그 결과가 심각한 비행 경험과 관련해서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p < .001$ ). 그러나 앵벌이, 약물, 자살, 폭주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 < .001$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앵벌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50명(53.8%), ‘앵벌이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명(46.2%)이었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앵벌이 경험이 없는 경우’가 165명

(66.3%)이고, '앵벌이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명(33.7%)이었다.

둘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약물 경험이 없는 경우'가 72명(77.4%), 약물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명(22.6%)이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약물 경험이 없는 경우'가 217명(88.6%), 약물 경험이 있는 경우가 28명(1.4%)이다.

셋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자살 경험이 없는 경우'가 61명(66.3%), '자살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명(33.7%)이었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자살 경험이 없는 경우'가 206명(83.1%), '자살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명(16.9%)이었다.

넷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폭주 경험이 없는 경우'가 44명(47.3%), '가출 당시에 폭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49명(52.7%)이었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에 폭주 경험이 없는 경우'가 166명(67.2%), '폭주경험이 있는 경우가 81명(32.8%)이었다.

다섯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 검거 경험이 없는 경우'가 25명(26.9%), '가출 당시 검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68명(73.1%)이고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출 당시 검거 경험이 없는 경우'가 104명(41.8%), '가출 당시 검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5명(58.25%)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앵벌이, 약물, 자살, 폭주, 검거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한 비행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4-41 ■ 집단유형에 따른 기타 일탈 경험 교차분석

구분		집단유형		전체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당시 앵벌이 경험	없다	50(53.8)	165(66.3)	215(62.9)
	있다	43(46.2)	84(33.7)	127(37.1)
전체		93(100)	249(100)	342(100)
카이제곱값(자유도)		4.53(1)*		
가출 당시 약물 경험	없다	72(77.4)	217(88.6)	289(85.5)
	있다	21(22.6)	28(11.4)	49(14.5)
전체		93(100)	245(100)	338(100)
카이제곱값(자유도)		6.76(1)**		
가출 당시	없다	61(66.3)	206(83.1)	267(78.5)

구분		집단유형		전체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자살 경험	있다	31(33.7)	42(16.9)	73(21.5)
전체		92(100)	248(100)	340(100)
카이자승값(자유도)		11.18(1)**		
가출 당시 폭주 경험	없다	44(47.3)	166(67.2)	210(61.8)
	있다	49(52.7)	81(32.8)	130(38.2)
전체		93(100)	247(100)	340(100)
카이자승값(자유도)		11.32(1)**		
가출 당시 검거 경험	없다	25(26.9)	104(41.8)	129(37.7)
	있다	68(73.1)	145(58.2)	213(62.3)
전체		93(100)	249(100)	342(100)
카이자승값(자유도)		6.38(1)*		

\* p<.05 \*\* p<.01 \*\*\* p<.001

▮ 표 4-42 ▮ 집단유형에 따른 심각한 비행 경험 교차분석

명(%)

구분		집단유형		전체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	
가출 당시 폭행 경험	없다	49(52.1)	131(53.0)	180(52.8)
	있다	45(47.9)	116(47.0)	161(47.2)
전체		94(100)	247(100)	341(100)
카이자승값(자유도)		0.02(1)		
가출 당시 패싸움 경험	없다	68(73.1)	201(82.0)	269(79.6)
	있다	25(26.9)	44(18.0)	69(20.4)
전체		93(100)	245(100)	338(100)
카이자승값(자유도)		3.30(1)		
가출 당시 뺑뜨기 경험	없다	48(51.1)	124(50.0)	172(50.3)
	있다	46(48.9)	124(50.0)	170(49.7)
전체		94(100)	248(100)	342(100)
카이자승값(자유도)		0.03(1)		
가출 당시 훔치기 경험	없다	59(64.1)	148(60.4)	207(61.4)
	있다	33(35.9)	97(39.6)	130(38.6)
전체		92(100)	245(100)	337(100)
카이자승값(자유도)		0.39(1)		
가출 당시 협박 경험	없다	65(70.7)	195(79.6)	260(77.2)
	있다	27(29.3)	50(20.4)	77(22.8)
전체		92(100)	245(100)	337(100)
카이자승값(자유도)		3.02(1)		

\* p<.05 \*\* p<.01 \*\*\* p<.001

## 제 3 절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보호요인

### 1. 청소년 집단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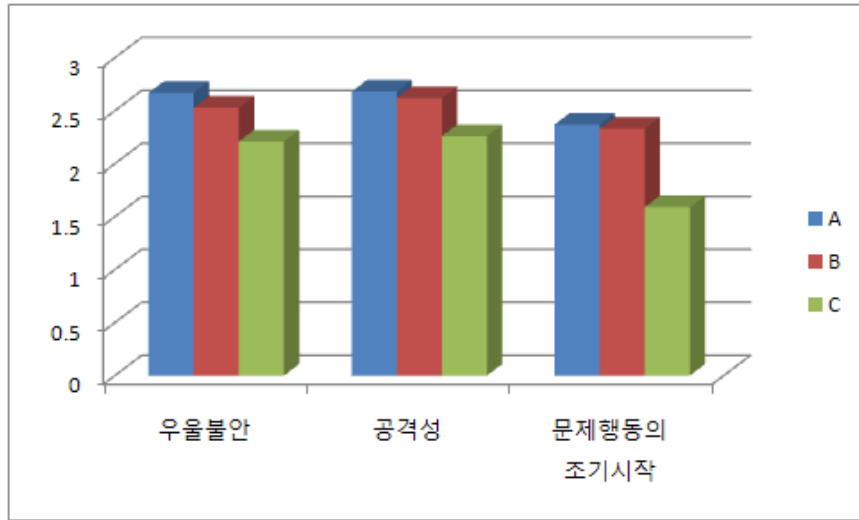
#### 1) 개인 관련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 (1) 개인 관련 위험요인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개인 관련 위험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43>, (그림 4-2)와 같다. 그 결과 개인 관련 위험요인인 우울불안,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모두 집단유형별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

우울불안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67,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53,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21이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우울불안이 높았던 반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우울 불안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있는 집단’,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 모두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격성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2.68,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62,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26이었다. 공격성 또한 우울·불안과 유사하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제일 높았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공격성이 가장 낮았다.



▮ 그림 4-2 ▮ 개인 관련 위험요인

개인관련 위험요인 중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조기시작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2.37,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33,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1.59였다. 문제행동 조기시작도 다른 위험요인들과 유사하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문제행동 조기시작이 높았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문제행동 조기시작이 가장 낮았다.

▮ 표 4-43 ▮ 집단유형에 따른 개인 관련 위험요인 차이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우울 불안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4	2.67	0.64	34.35***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6	2.53	0.7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0	2.21	0.63		
	합계	940	2.35	0.67		
공격성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4	2.68	0.79	37.06***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8	2.62	0.7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5	2.26	0.59		
	합계	950	2.41	0.67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문제행동의 초기시작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6	2.37	0.83	151.01***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8	2.33	0.74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8	1.59	0.55		
	합계	952	1.88	0.74		

\* p<.05 \*\* p<.01 \*\*\* p<.001

## (2) 개인 관련 보호요인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개인 관련 보호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44>, <표 4-45>, (그림 4-3), (그림 4-4)과 같다. 그 결과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성주체성, 가부장적 의식 모두 집단유형별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1$ ).

사회유능감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52,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68,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89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사회유능감이 가장 높았고, 반면 ‘가출경험이 있고 성매매경험도 있는 집단’이 사회유능감이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사회유능감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상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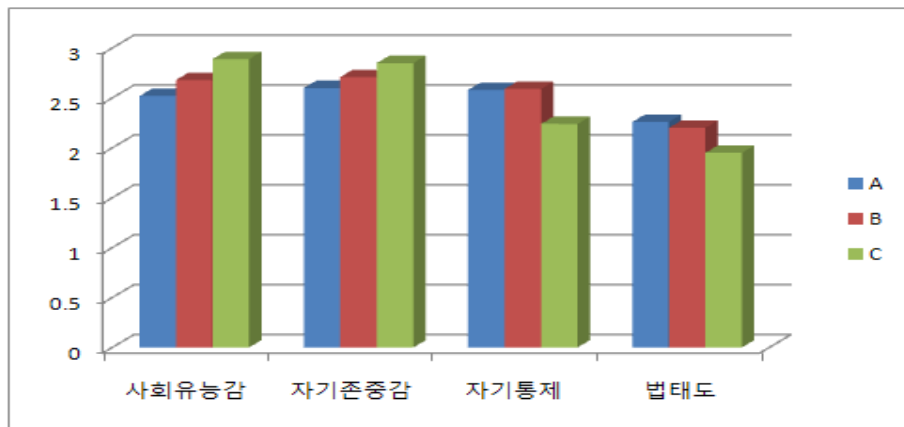


그림 4-3 개인 관련 보호요인(1)

자기존중감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60,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7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85였다. 이를 통해 자기존중감은 사회유능감과 유사하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기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반면 ‘가출경험이 있고 성매매경험도 있는 집단’이 자기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자기통제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58,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59,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24였다. 그리고 사후 검증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과 그 외 다른 두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통제의 경우에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4-44 ■ 집단유형에 따른 개인 관련 보호요인 차이 (1)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사회 유능감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6	2.52	0.47	56.25***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6	2.68	0.4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5	2.89	0.35		
	합계	947	2.79	0.40		
자기 존중감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5	2.60	0.65	13.84***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7	2.71	0.03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6	2.85	0.49		
	합계	948	2.78	0.52		
자기통제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3	2.58	0.61	43.10***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8	2.59	0.56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8	2.24	0.53		
	합계	949	2.38	0.57		
법에 대한 태도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5	2.26	0.68	26.48***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7	2.20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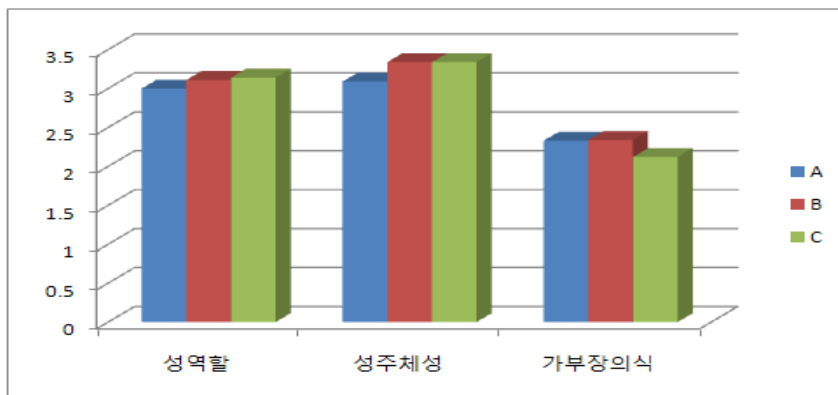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8	1.95	0.52		
	합계	950	2.06	0.56		

\* p<.05 \*\* p<.01 \*\*\* p<.001

법에 대한 태도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26,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20,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1.95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고, ‘가출경험이 있고 성매매경험도 있는 집단’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가장 낮았다.

〈표 4-45〉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00,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3.11,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14였다. 사후검증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 외 다른 두 집단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성역할 평균이 낮은 것을 가정할 때, 성매매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주체성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09,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3.34,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34였다. 사후검증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 외 다른 집단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성주체성이 낮았다. 그러므로 성매매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주체성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4-4 ■ 개인 관련 보호요인(2)

가부장적 의식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33,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34,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12였다. 사후검증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과 그 외 다른 두 집단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의식이 낮았다. 그러므로 가출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부장적 의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청소년들은 사회화과정에서 성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행위를 사랑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보다는 남자 친구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함을 <표 4-45>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4-45 ■ 집단유형에 따른 개인 관련 보호요인 차이 (2)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성역할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6	3.00	0.69	2.41***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3	3.11	0.63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2	3.14	0.52		
	합계	941	3.12	0.57		
성주체성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6	3.09	0.60	10.74***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6	3.34	0.5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2	3.34	0.48		
	합계	944	3.31	0.51		
가부장적 의식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5	2.33	0.82	10.94***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6	2.34	0.68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1	2.12	0.66		
	합계	942	2.21	0.69		

\* p<.05 \*\* p<.01 \*\*\* p<.001

## 2) 가족 관련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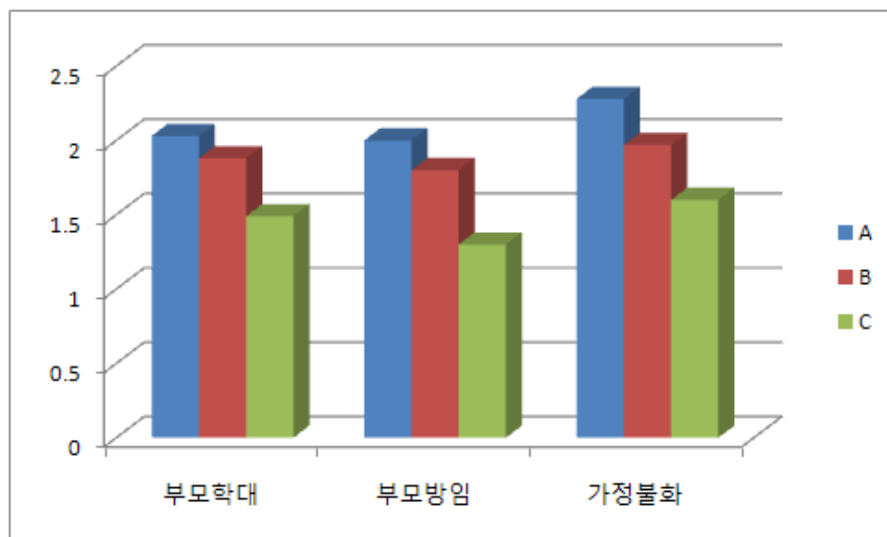
### (1) 가족 관련 위험요인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가족 관련 위험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6>, (그림 4-5)과 같다. 그 결과 부모학대, 부모방임, 가정불화 모두 집단유형별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

부모학대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03,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1.88,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1.49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모 학대경험이 높았던 반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모 학대경험이 낮았다.

방임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00,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1.80,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1.30이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방임경험이 높은 반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방임경험이 낮았다.

가정불화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28,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1.97,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1.60이었다. 가정불화도 방임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정불화가 높은 반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정불화가 낮았다.



■ 그림 4-5 ■ 가족 관련 위험요인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학대, 부모방임, 가정불화 모두가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집단에서 제일 높았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친밀감과 애정의 근원지인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불화의 노출, 학대, 방임의 피해는 그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 표 4-46 ▣ 집단유형에 따른 가족 관련 위험요인 차이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부모학대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7	2.03	0.86	43.50***	C(B<A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5	1.88	0.82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7	1.49	0.60		
합계		949	1.66	0.73		
부모방임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6	2.00	0.72	133.99***	C(B<A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6	1.80	0.68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4	1.30	0.36		
합계		946	1.51	0.59		
가정불화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7	2.28	1.06	38.32***	C(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4	1.97	0.90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6	1.60	0.74		
합계		947	1.78	0.86		

\* p<.05 \*\* p<.01 \*\*\* p<.001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가족 관련 보호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47>과 <그림 4-6>와 같다. 그 결과 가족 관련 보호요인 중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집단유형별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부모애착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32,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58,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98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모애착이 높았다. 반면 '가출경험이 있고 성매매경험도 있는 집단'이 부모애착이 가장 낮았다.

부모감독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24,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45,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03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모감독이 가장 높았고, 반면 ‘가출경험이 있고 성매매경험도 있는 집단’이 부모감독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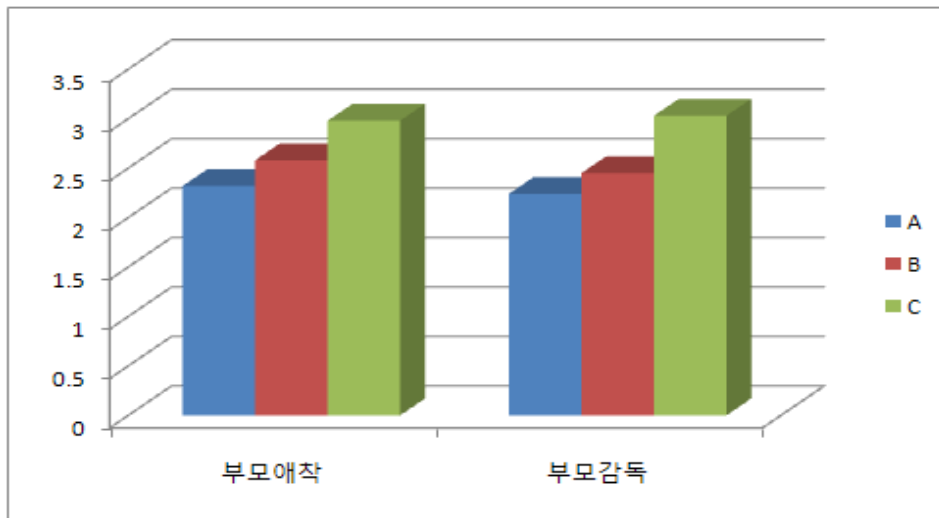


그림 4-6 가족 관련 보호요인

표 4-47 집단유형에 따른 가족 관련 보호요인 차이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s test
부모애착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7	2,32	0,83	51,06***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4	2,58	0,81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2	2,98	0,65		
	합계	943	2,80	0,76		
부모감독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7	2,24	0,91	85,01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7	2,45	0,83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7	3,03	0,65		
	합계	951	2,78	0,80		

\* p<.05 \*\* p<.01 \*\*\* p<.001

### 3) 또래 관련 위험요인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또래 관련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48>과 (그림 4-7)와 같다. 또래 관련 위험요인 가운데 비행 친구 수, 성매매 친구 수, 비행 선배 수, 성매매 선배 수 등이 집단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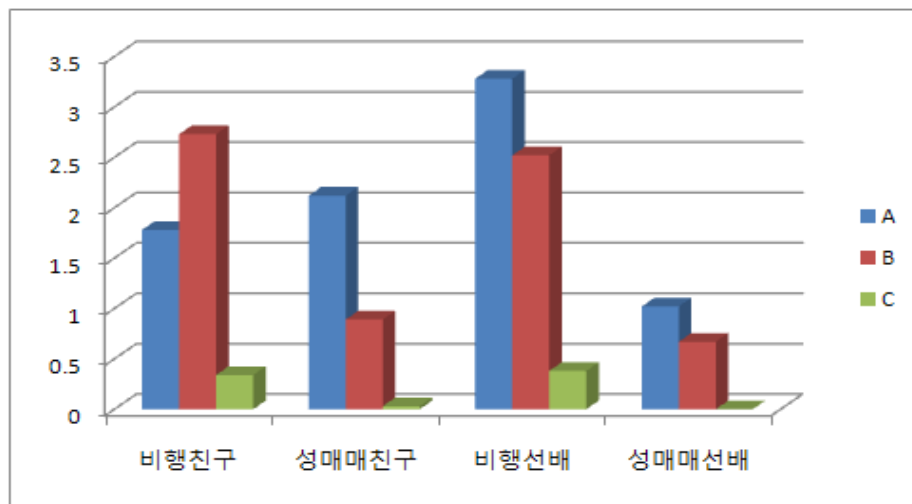


그림 4-7 | 또래관련 위험요인

비행 친구 수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1.78,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73,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0.34였다.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비행 친구 수가 가장 적었다.

흥미롭게도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에 비해 비행친구가 더 적었다. 성매매 친구의 수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12,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0.89,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0.03이었다.

비행 선배의 수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12,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0.89,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0.03이었다.

성매매 선배의 수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12,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0.89,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0.03이었다.

【 표 4-48 】 집단유형에 따른 또래 관련 위험요인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비행 친구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83	1.78	2.29	51.74***	B)A)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17	2.73	4.17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436	0.34	2.07		
합계		736	1.20	3.07		
성매매 친구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82	2.12	3.29	68.86***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191	0.89	2.03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423	0.03	0.25		
합계		696	0.51	1.70		
비행 선배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77	3.28	6.20	27.40***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188	2.52	3.86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354	0.38	3.42		
합계		619	1.39	4.16		
성매매 선배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74	1.02	1.68	28.40***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171	0.67	2.11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346	0.00	0.00		
합계		591	0.32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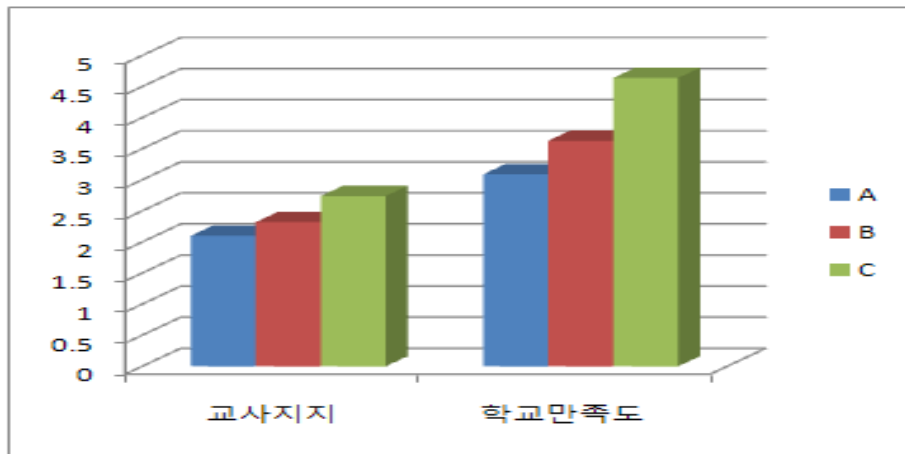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4) 학교 관련 보호요인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구분한 후, 집단유형별로 학교 관련 보호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49>과 (그림 4-8)와 같다.

학교 관련 보호요인 가운데 교사지지, 학교만족도 등이 집단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p<.001). 교사지지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10,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2.23,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2.74였다. 학교만족도의 경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09, ‘가출 경험만 있는 집단’의 평균은 3.63,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4.64였다. 상대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교사지지 및 학교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그림 4-8 ■ 학교 관련 보호요인

■ 표 4-49 ■ 집단유형에 따른 학교 관련 보호요인

명(%)						
	집단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t's test
교사지지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5	2.10	0.91	10.58***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1	2.32	0.84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74	2.74	0.63		
	합계	940	2.55	0.76		
학교 만족도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A)	97	3.09	2.02	54.44***	A(B<C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B)	279	3.63	2.04		
	가출 경험× 성매매 경험×(C)	581	4.64	1.48		
	합계	957	4.19	1.81		

\* p<.05 \*\* p<.01 \*\*\* p<.001



## 2. 위험요인이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매매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위험요인으로는 주변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본인의 성폭행 경험유무, 우울증이나 불안증세의 정도, 공격적 태도, 문제행동이 시작된 시기, 권위의식, 가정의 학대, 가정방임, 가정불화, 가출 전 피해 경험정도, 가출 전 비행 정도를 투입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sup>14)</sup>을 고려하였다. 다항로지분석은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준거집단과 다른 집단의 비교를 통해 추정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을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3집단)’으로 정하였다.

<표 4-50>를 보면,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의 초기시작, 가정방임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청소년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오즈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약 6배[ $\exp(b)=6.46$ ]나 높으며, 특히 성폭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무려 25배[ $\exp(b)=25.42$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을 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청소년들 상당수는 성폭행 경험자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이른 시기에 문제행동이 나타난 청소년의 경우 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5배[ $\exp(b)=4.80$ ], 가정에서 방임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3배[ $\exp(b)=2.83$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만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중에서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이 시작된 시기, 권위의식, 가정방임, 가출 전 피해 경험 정도, 가출 전 비행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변에 성매매를 하

---

14) 아버지 교육수준은 청소년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학문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변인 중의 하나이며, 가출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쳐 왔던 변인이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15) 물론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모두 있는 청소년의 성폭행 경험이 가출이나 성매매 이전에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가출이나 성매매 이후에 경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 경험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수록, 권위의식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 정도가 높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 경험이 적을수록, 가출 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과 비교해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50 위험요인의 영향(준거집단: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9.112	-5.000***		-4.125	-3.110**	
통제변인						
아버지 교육수준	-1.005	-4.770***	0.37	-0.775	-6.040***	0.46
위험요인						
주변 성매매 경험	1.866	7.560***	6.46	1.420	6.880***	4.14
성폭행 경험	3.236	6.180***	25.42	1.297	2.730**	3.66
우울불안	-0.148	-0.420	0.86	0.053	0.220	1.05
공격성	0.037	0.110	1.04	-0.328	-1.420	0.72
문제행동조기시작	1.570	4.560***	4.80	1.503	6.090***	4.50
권위의식	-0.406	-1.250	0.67	-0.501	-2.180*	0.61
가정의 학대	0.013	0.040	1.01	0.225	0.940	1.25
가정방임	1.041	2.830**	2.83	0.800	2.670**	2.23
가정불화	0.155	0.580	1.17	-0.086	-0.420	0.92
가출 전 피해	0.175	0.730	1.19	-0.546	-2.640**	0.58
가출 전 비행	0.122	0.830	1.13	0.448	3.980***	1.57
사례수	682					
Log likelihood	-294.318					
$\chi^2$ (자유도)	601.30(24)					
Pseudo R <sup>2</sup>	0.505					

\* p<0.05 \*\* p<0.01 \*\*\* p<0.001

(그림 4-9)은 위험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sup>16)</sup>. 주변에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의 수, 성폭행의 경험은 3집단(가출도 성매매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2집단(가출만 경험한 집단), 그리고 2집단과 1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16) 숫자와 숫자 간의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숫자 간에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Long and Freeze, 2006).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폭행의 경험은 세 집단을 보다 확연하게 구분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처럼 성매매 경험자 수와 성폭행의 경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은 3집단(준거집단)과 다른 두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출 전 피해 경험의 정도와 가출 전 비행 정도는 2집단(가출만 경험한 집단)과 다른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즉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전에 다른 학생에 비해 피해는 덜 당했으면서도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은 비행경험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의 의식은 3집단(준거집단)에 비해 1집단과 2집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Change Scale Relative to Category 3						
	.58	1.09	2.04	3.84	7.21	13.54	25.42
주변성매매	3			2		1	
성폭행경험-0/1	3			2		1	
조기통제	3			2			
권위	2		3				
방임	3			2		1	
가출전피해	2		3				
가출전가해	3			2			
	Logit Coefficient Scale Relative to Category 3						
	-55	.08	.71	1.34	1.98	2.61	3.24

■ 그림 4-9 ■ 위험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 3.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매매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유능감, 자기통제력,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성주체성, 가부장적 의식, 부모애착, 부모감독, 교사지지, 자기존중감을 투입하였고, 통제변인으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은 독립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준거집단과 다른 집단의 비교를 통해 추정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을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3집단)’으로 정하였다.

■ 표 4-51 ■ 보호요인의 영향(준거집단: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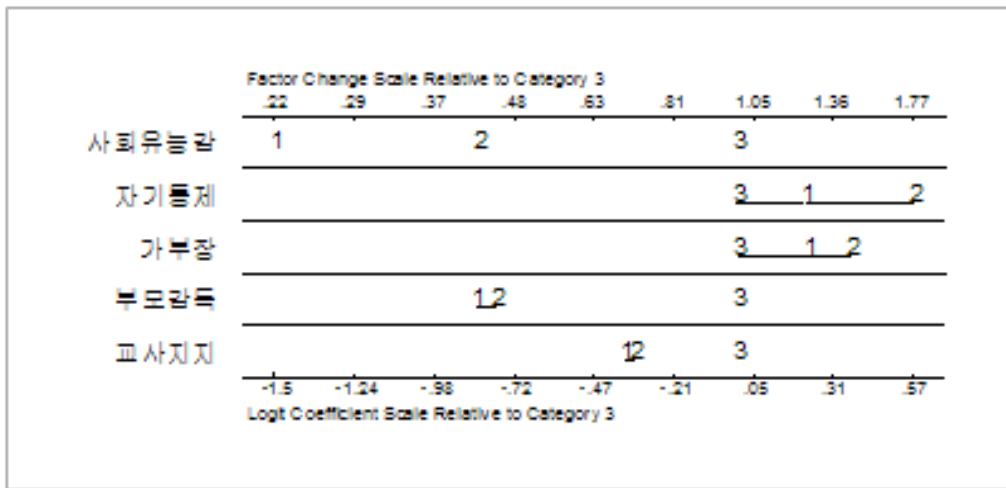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8,256	4,420 ***		3,494	2,490*	
통제변인						
아버지 교육수준	-0.795	-5.510 ***	0.45	-0.765	-7.980***	0.47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1,501	-3,670 ***	0.22	-0,842	-2,730**	0.43
자기통제력	0,219	0,670	1,25	0,569	2,530	1,77
법준수 태도	0,369	1,110	1,45	0,265	1,160	1,30
성역할 태도	0,132	0,430	1,14	-0,141	-0,650	0,87
성주체성	-0,645	-1,820	0,52	0,132	0,520	1,14
가부장의식	0,224	0,980	1,25	0,367	2,320*	1,44
부모애착	-0,317	-1,140	0,73	0,070	0,360	1,07
부모감독	-0,849	-3,240 ***	0,43	-0,786	-4,350***	0,46
교사지지	-0,367	-1,850	0,69	-0,337	-2,310*	0,71
자기존중감	0,025	0,190	1,03	0,057	0,590	1,06
사례수	709					
Log likelihood	-471,039					
$\chi^2$ (자유도)	316,88(22)					
Pseudo R <sup>2</sup>	0,252					

\* p<0,05 \*\* p<0,01 \*\*\* p<0,001

먼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1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과 부모감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감독이 적을수록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계수값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한 결과 사회유능감이 낮은 청소년이 가출과 성매매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은 사회유능감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78%[(1-0.22)×100]나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부모감독이 낮은 청소년이 가출과 성매매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준거집단 대비)은 부모감독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57%[(1-0.43)×100] 정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이 가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데 있어 개인수준에서의 사회유능감과 가정수준에서의 부모

감독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 경험이 없이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2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은 사회유능감과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부모감독, 교사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가부장의식이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사회유능감과 부모감독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지만,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교사지지는 가출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0 ■ 보호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그림 4-10)은 보호요인이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에 표시된 숫자 1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을, 2는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 집단’을, 3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을 나타낸다.

사회유능감의 경우 준거집단(3집단)에 비해 2집단의 사회유능감이 낮고, 1집단의 사회유능감은 2집단과 3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통제력과 가부장의식의 경우 2집단이 1집단과 3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반면, 부모감독과 교사지지는 3집단이 1집단/2집단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1집단과 2집단 간에 부모감독

이나 교사지지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사회유능감, 부모감독, 교사지지는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요인이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제요인으로 고려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3집단(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과 1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 그리고 2집단(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을 유의미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가출이나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에게 비해 절반가량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요인을 검증한 모형과 위협요인을 검증한 모형 간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카이사승( $\chi^2$ )의 경우 보호요인의 값이 316.88인 데 비해 위협요인의 값은 601.30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았고, 모델설명력( $R^2$ )도 위협요인 모형(50.5%)이 보호요인 모형(25.2%)보다 높다. 따라서 위협요인 모형의 설명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위협요인 및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표 4-52〉은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을 각각 검증한 모형에서는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해 1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유능감과 부모감독,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 시작, 가정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변인의 차이는 없었다.<sup>17)</sup>

구체적으로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부모감독 정도가 낮을수록, 주변에 성매매 경험자가 많을수록,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수록, 가정에서 자녀를 방임하는 정도가 클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성폭행의 경험( $b=3.323$ )과 주변 성매매 경험자 수( $b=1.961$ )로 보호요인보다는 위협요인이 가

---

17) 다만, 부모감독의 경우 보호요인 모형에서는 영향력이  $b=-0.849$ 로 유의확률 0.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에서는 영향력이  $b=-0.748$ 로 줄어들었고,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52 ■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준거집단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2,120	-0.600		-0.992	-0.390	
통제변인						
아버지 교육수준	-0,869	-3,840***	0,42	-0,755	-5,400***	0,47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1,300	-2,060*	0,27	-0,899	-1,930 <sup>†</sup>	0,41
자기통제력	-0,545	-1,010	0,58	-0,084	-0,240	0,92
법준수 태도	0,124	0,240	1,13	0,088	0,250	1,09
성역할 태도	0,176	0,360	1,19	-0,242	-0,810	0,78
성주체성	0,095	0,180	1,10	0,606	1,710 <sup>†</sup>	1,83
가부장의식	0,365	1,060	1,44	0,364	1,630	1,44
부모애착	-0,286	-0,600	0,75	-0,014	-0,040	0,99
부모감독	-0,748	-1,800 <sup>†</sup>	0,47	-0,596	-2,260*	0,55
교사지지	0,059	0,190	1,06	-0,150	-0,690	0,86
자기존중감	-0,167	-0,770	0,85	0,016	0,110	1,02
위험요인						
주변 성매매경험	1,961	7,130***	7,11	1,421	6,250***	4,14
성폭행 경험	3,323	5,580***	27,74	1,320	2,500*	3,74
우울불안	-0,670	-1,550	0,51	-0,164	-0,570	0,85
공격성	0,246	0,610	1,28	-0,389	-1,370	0,68
문제행동 조기시작	1,487	3,780***	4,42	1,458	5,390***	4,30
권위의식	-0,285	-0,760	0,75	-0,455	-1,780 <sup>†</sup>	0,63
가정학대	-0,005	-0,010	1,00	0,343	1,250	1,41
가정방임	0,885	2,220*	2,42	0,669	2,120*	1,95
가정불화	-0,063	-0,210	0,94	-0,268	-1,180	0,77
가출 전 피해	0,132	0,510	1,14	-0,531	-2,420*	0,59
가출 전 비행	0,172	1,090	1,19	0,460	3,790***	1,58
사례수	657					
Log likelihood	-263,395					
$\chi^2$ (자유도)	613,75(44)					
Pseudo R <sup>2</sup>	0,538					

<sup>†</sup> p<0,1 \* p<0,05 \*\* p<0,01 \*\*\* p<0,001

한편, 준거집단에 비해 2집단(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유능감, 성주체성, 부모감독정도, 주변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

시작, 권위의식, 가정방임, 가출 전의 피해 경험, 가출 전의 비행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 앞서 보호요인 모델에서와 달리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교사지지정도는 영향력이 사라진 반면, 성주체성은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주체성 측면에서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들이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성주체성이 더 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요인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모델과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 설명력의 경우 카이자승( $\chi^2$ ) 값이 613.75이고, 모델설명력( $R^2$ )은 0.538로 보호요인 모델이나 위험요인 모델보다는 다소 설명력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위험요인 모델에 비해 모형적합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위험요인이 세 집단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 5. 위험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위험요인은 청소년 성매매는 물론 청소년 가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보호요인에 의해 조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항을 통해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위험요인이 청소년성매매나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이 보호요인에 의해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유능감과 부모감독을, 위험요인으로는 주변성매매 경험자의 수, 성폭행의 경험유무,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을 선정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상호작용항 8개를 생성하여<sup>18)</sup>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상호작용 항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중에서 ‘가정방임\*부모감독’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정방임정도가 높을수록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1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속할 확률이 높지만, 부모감독이라고 하는 보호요인이 가정방임으로 인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18)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s)은 각각의 요인을 표준화시켜(standardization)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친밀한 타자와의 애착에 근거한 내적인 통제인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에 따라 가정방임이 가출 및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그림 13)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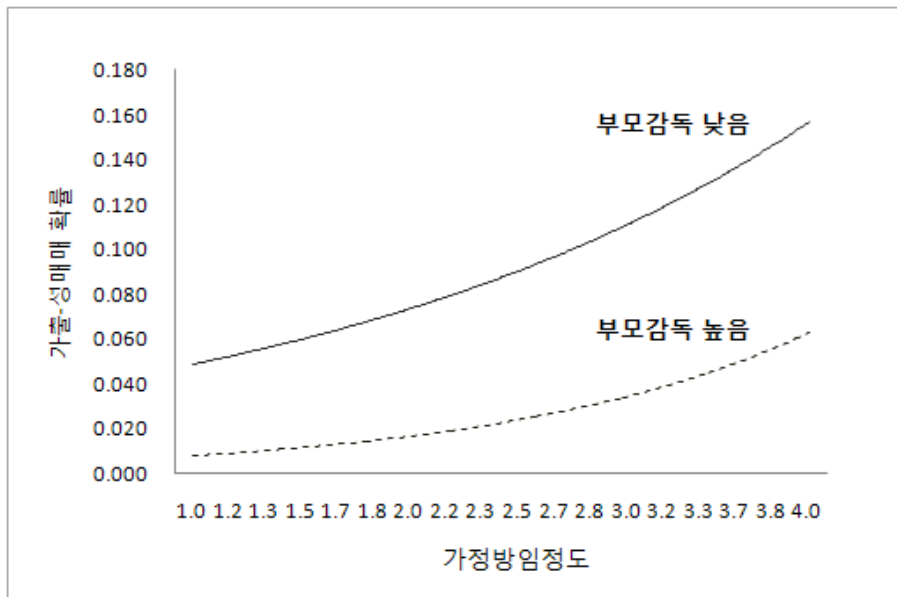
표 4-53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분석(준거집단 :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상수	-8.722	-2,040*		-3,392	-1,200	
통제변인						
아버지 교육수준	-0.995	-4.070***	0.37	-0.806	-5.430***	0.45
보호요인						
사회유능감	0.681	0.710	1.98	-0.993	-1,800†	0.37
자기통제력	-0.471	-0.800	0.62	0.017	0.050	1.02
법준수 태도	0.218	0.380	1.24	0.157	0.430	1.17
성역할 태도	0.217	0.430	1.24	-0.252	-0.790	0.78
성주체성	-0.002	0.000	1.00	0.738	1,880†	2.09
가부장의식	0.445	1,180	1.56	0.378	1,580	1.46
부모애착	-0.520	-1,020	0.59	-0.184	-0,550	0.83
부모감독	-0.977	-1,880†	0.38	-0.596	-2,120*	0.55
교사지지	0.104	0.310	1.11	-0.163	-0,720	0.85
자기존중감	-0.019	-0.080	0.98	0.138	0.870	1.15
위험요인						
주변 성매매 경험	2.069	6,430***	7.92	1,594	6,420***	4.92
성폭행 경험	3.604	5,030***	36.75	1,314	2,100*	3.72
우울불안	-0.505	-1,080	0.60	-0.046	-0,150	0.96
공격성	0.328	0,740	1.39	-0.400	-1,320	0.67
문제행동 조기사작	1.769	3,670***	5.87	1,688	5,660***	5.41
권위의식	-0.124	-0,300	0.88	-0.413	-1,520	0.66
가정학대	0.072	0,180	1.07	0.536	1,810†	1.71
가정방임	0.174	0,310	1.19	0.311	0,850	1.36
가정불화	-0.076	-0,240	0.93	-0.391	-1,600	0.68
가출 전 피해	0.205	0,720	1.23	-0.394	-1,700†	0.67
가출 전 비행	0.193	1,130	1.21	0.505	3,930***	1.66
상호작용변인						
주변성매매경험*사회유능감	-0.494	-1,550	0.61	0.071	0,250	1.07
성폭행경험*사회유능감	-0.600	-1,010	0.55	-0.580	-1,050	0.56
문제행동조기사작*사회유능감	0.162	0,640	1.18	0.347	1,770†	1.42
가정방임*사회유능감	-0.012	-0,040	0.99	-0.013	-0,060	0.99
주변성매매경험*부모의감독	0.014	0,050	1.01	-0.084	-0,340	0.92
성폭행경험*부모의감독	0.595	0,890	1.81	0.694	1,130	2.00
문제행동조기사작*부모의감독	-0.032	-0,120	0.97	-0.246	-1,270	0.78

집단구분	가출+성매매 집단(1집단)			가출 집단(2집단)		
	계수값	Wald(z)	exp(b)	계수값	Wald(z)	exp(b)
가정방임*부모의감독	-0.819	-2.950**	0.44	-0.710	-3.070**	0.49
사례 수	657					
Log likelihood	-247.211					
$\chi^2$ (자유도)	646.11(60)					
Pseudo R <sup>2</sup>	0.567					

† p<0.1 \* p<0.05 \*\* p<0.01 \*\*\* p<0.001

(그림 4-11)은 가정방임정도에 따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할 확률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을 부모감독 정도에 따라 부모감독이 높은 청소년과 부모감독이 낮은 청소년을 비교할 경우 가출과 성매매 모두를 경험할 확률이 가정방임 정도가 클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방임 정도가 낮고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출이나 성매매를 경험할 확률은 0에 가깝지만, 가정방임도 높고 부모감독도 낮은 청소년이 가출이나 성매매를 경험할 확률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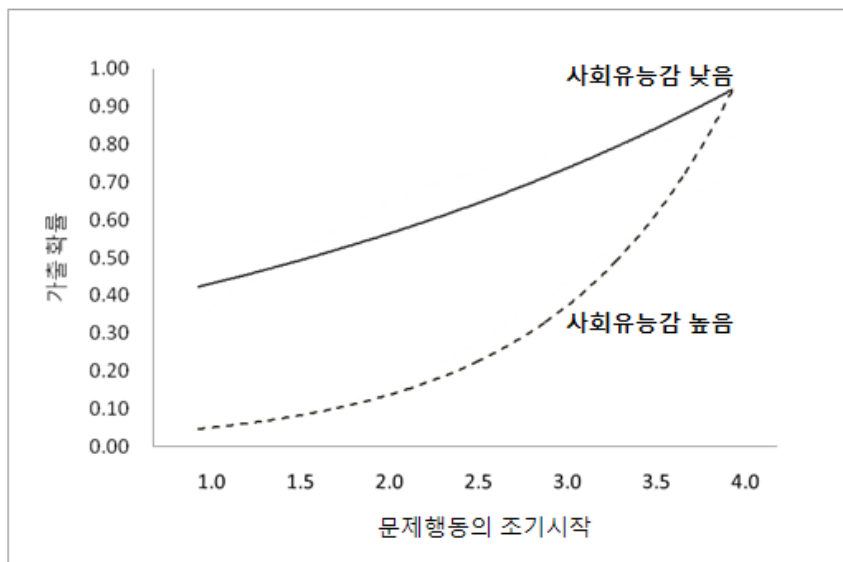


■ 그림 4-11 ■ 위험요인(가정방임)이 가출+성매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부모감독)의 조절효과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가 2집단(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사회유능감’과 ‘가정방임\*부모감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에 나타난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사회유능감에 따라 다르며, 가정방임 정도에 따라 가출할 가능성이 부모감독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항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 4-12)과 같이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에 따른 가출의 확률을 사회유능감 수준에 따라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 시기부터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회유능감이 높으면 가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비록 이른 시기부터 문제행동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가출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행동이 조기부터 나타난 청소년의 경우 사회유능감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비록 사회유능감이 보호요인으로 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기는 하지만,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에는 보호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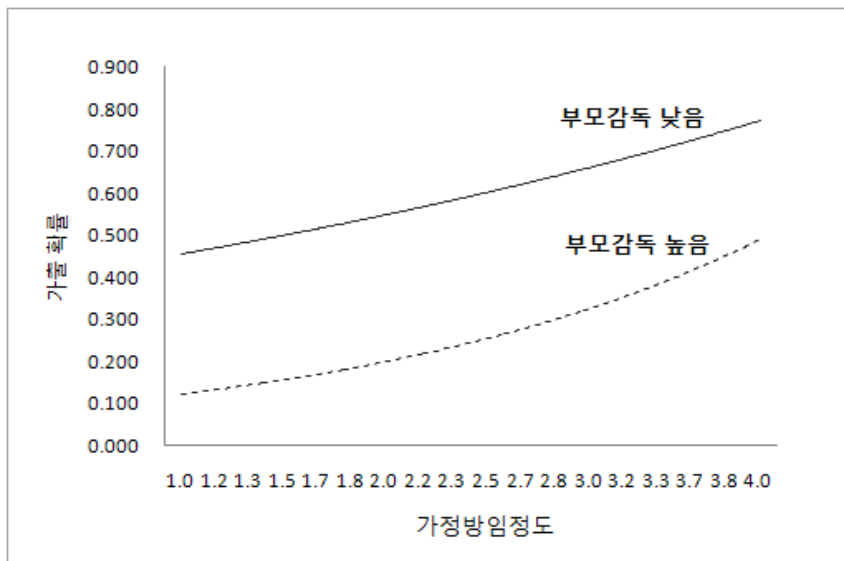


■ 그림 4-12 ■ 위험요인(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사회유능감)의 조절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항 중에서 1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방임\*부모감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12)와 같이 가정방임 정도에 따른 가출의 확률을 부모감독 정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정방임 정도가 낮고 부모감독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가출할 확률은 극히 낮은 반면, 가정방임 정도가 높고 부모감독도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가정방임 정도가 높은 경우 부모감독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출할 가능성은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방임 정도가 큰 경우 부모감독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정방임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부모감독과 같은 보호요인에 어느 정도 조절되는 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정방임이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과 같은 위험요인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감독이나 사회유능감과 같은 보호요인이 일정부분 가출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위험요인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매매로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은 물론 보호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4-13 ■ 위험요인(가정방임)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부모감독)의 조절효과

# 제 5 장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의 가출청소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초 가출시기도 빨라지고 가출한 여자 청소년의 많은 수가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가족의 구조적 특징’, ‘학교생활’, ‘친구 및 선배’, ‘가출 경험’, ‘성매매’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과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3가지 집단유형으로 나눈 후 비교를 통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추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이 가출한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이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교육정도’, ‘근로 경험’, ‘경제 수준’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며, 친부모와 거주하는 비율도 낮았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초기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관심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Hindelang et al., 1981; Sampson, 1986; Tittle and Meier, 1990; 김준호·노성호, 1989; 김준호·이성식, 1996; 기광도, 2003).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는 ‘가족의 기능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

족의 구조적 특성'이 아직까지도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하였다.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계층적 문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변혜정·민가영, 2007; 민가영, 2007;2008;2009; 김연주, 2010). 그러나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원가족의 계층과 분리하여 사고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분리하여 사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원가족의 맥락안에서 포괄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만족도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았으며, 무단결석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친구관계'를, 가출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규칙'을 학교 생활의 힘든 점으로 손꼽았다.

이주영(2006)에 의하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학교규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율보다도 친구관계를 더 힘들어 하고 있었다. 반면 가출경험만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손쉽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학교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에서도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만 한 청소년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래가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면서 '친구'만큼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도 '친구'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박현수, 2008; 이은주, 2009).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거리생활을 하는 동안 영향을 미치는 또래는 단순히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구'뿐만 아니라 '선배'까지 확장하여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성매매 경험이 있는 친구 혹은 선배가 많았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없고 오직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들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행관련 친구가 많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 유사한 또래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래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를 하게 되는지 혹은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종단적 자료 혹은 생애사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성적 경험을 했는지 ‘성경험’, ‘성폭행’, ‘성매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성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성관계경험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첫 성경험 평균나이는 14.7살, 가출 경험만 있는 청소년의 첫 성경험평균나이는 15.6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첫 성경험평균나이는 15.7살이었다.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첫 성경험 평균나이가 매우 낮았다. 또한 그녀들은 성관계 계기조차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했을 때,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성관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두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이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혹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는 비율도 높고,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다원화된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자기결정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폭행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폭행경험이 55.2%로 매우 높았다.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전이나 가출 후에 상관없이 성폭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출이나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가출 및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성폭행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반복된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회복과정 프로그램의 실행이 중요하다. 만약 적절한 회복과정이 없다면, 성폭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도 높고,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첫 성매매 경험은 주로 중학교 시기인 14세에서부터 16세까지(57.8%)에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등학교시기인 13세 이하의 비율이 6.2%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홍봉선·남미애(2009) 연구에서 제시했던 13세 이하 비율이 3%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가족부, 2008), 14~15세 비율이 점차 증가해 2000년 36.4%이던 것이 2006년에는 46.0%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6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성 관련’ 일탈들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위기청소년정책이 위기아동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배경으로 성매매를 경험하게 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68.7%가 가출 후 생활비가 없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그 결과가 같다(김은실 외, 1999; 장필화 외, 2002). 김은실(1999)등은 청소년성매매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맞물린 문제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배제는 유사하며, 이러한 배제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통로는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었다는 비율이 84.7%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다(홍봉선·남미애, 2009; 보건복지부, 2008). 가출 및 성매매 노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성매매 유입경로인 인터넷에 대한 제재정책은 청소년의 성매매방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성매매와 가출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가출이후 성매매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가출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가출 이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사이에 가출횟수 및 가출 계기, 가출 어려움, 가출 이후 아르바이트 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가출경험 및 가출기간 또한 길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경우 장기가출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출 원인을 살펴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문제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친구 및 놀고 싶어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 때문에 가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집으로 돌아가기가 더 힘들 가능성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성매매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가출의 어려움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성매매경험이 있든 없든 가출의 어려움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을 한 이후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과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 ‘가출당시의 피해와 가해’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성폭행, 폭행,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놀림당하기, 협박당하기 등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 집단에서도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집단과 피해를 덜 당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를 더 당하는 집단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위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출한 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살펴보면,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앵벌이, 약물, 자살, 폭주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두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여섯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집단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있어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만 한 청소년’, 그리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성, 우울·불안,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부모학대, 부모방임, 성매매친구, 비행선배, 성매매선배, 가부장적 의식은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았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성주체성, 부모애착, 부모감독, 교사지지, 학교 만족도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가출 및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상대적으

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곱째, 위험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에 성매매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조기에 시작한 청소년일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위의 위험요인 가운데 성폭행경험의 영향력은 매우 높았다. Wilson(2010)은 청소년기 비행은 매개로 해서 아동기에 경험한 성적 학대와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정혜원(2011)연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생활의 과정에서 혹은 가출 이전에도 또래 남성들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었다.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폭행 경험이 55.2%이상이었고, 가출이전에 성폭행이 많이 당한 청소년들이 가출이후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정리하면,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이후에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행과 관련된 교육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져 온 금지 위주의 성교육은 청소년이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의 다원화를 통해 청소년이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맹영임 외, 2007; 이춘화·조아미, 2008 재인용). 또한 성폭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이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변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이 성폭행경험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수록, 권위의식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가출 전에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가출 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주변성매매 경험자 수, 성폭행의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의 세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주변성매매 경험자 사람의 수와 성폭행의 경험에 따른 차이는 세 집단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위험요인이었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은 가출을 경험한 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한 청소년+가출만 경험한 청소년)과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전에 다른 청소년에 비해 피해는 덜 당했으며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은 비행경험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보호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데 있어 개인수준에서의 사회유능감과 가정수준에서의 부모감독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가부장의식이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사회유능감과 부모감독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지만, 자기통제력, 가부장의식, 교사지지는 가출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실제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에서는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유능감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주변에 성매매 경험자가 많을수록,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수록, 가정에서 자녀를 방임하는 정도가 클수록 준거집단에 비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성폭행의 경험( $b=3.323$ )과 주변성매매 경험자 수( $b=1.961$ )로 보호요인보다는 위험요인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은 청소년 성매매는 물론 청소년가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보호요인에 의해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항을 통해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항 가운데 ‘가정방임\*부모감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가정방임정도가 높을수록 준거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1집단(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속할 확률이 높지만, 부모감독이라고 하는 보호요인이 가정방임으로 인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부모감독이란 중요한 타자에 대한 결속,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가 외출때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누구랑 함께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등을 아는 것이다. 즉, 가정방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타자의 결속과 보호가 있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사회유능감’과 ‘가정방임\*부모감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1$ ). 즉 문제행동이 이른 시기에 나타난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사회유능감에 따라 다르며, 가정방임정도에 따라 가출할 가능성이 부모감독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정방임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부모감독과 같은 보호요인에 어느 정도 조절되는 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정방임이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과 같은 위험요인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감독이나 사회유능감과 같은 보호요인이 일정부분 가출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위험요인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매매로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은 물론 보호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제언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첫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의 기능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도 매우 낮았다. 청소년 성매매에서 가족의 기능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문제에 관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은 빈곤과 생계의 부담으로 자녀 문제에 개입하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저소득계층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부모 상담이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실시한다든지 혹은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든지 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폭력 및 방임 가정을 발굴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이 지역사회안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저소득계층의 가족실태, 양부모 존재의 여부, 부모의 직업실태 등을 고려

---

19)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의 정책적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Ⅰ

할 때, 문제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부모대신 긍정적 지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제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멘토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방임이 있다고 해도 주요한 타자의 결속과 보호가 있다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만족도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았으며, 무단결석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관계’를 학교생활의 힘든 점으로 손꼽았으며, 가출만 한 집단에 비해 피해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들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미비하다. 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뿐만 아니라 첫 성매매 연령 또한 저연령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매매 혹은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게도 폭력을 경험하지만 신체적 성적 위협에 대한 인지도와 대응능력이 매우 낮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서비스체계와의 공조를 통해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성관련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성폭행은 성매매와 하나의 연속성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들을 통해 추출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근거로 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sup>20)</sup>. 물론 이 연구를 통해 추출된 주변 성매매 경험, 성폭행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가정방임 등과 같은 위험요인, 그리고 사회유능감, 부모감독<sup>21)</sup> 등과 같은 보호요인에 근거한 개별 정책과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매매

---

20)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구조화되어 있어야 하며, 인간관계 기술이나 직업기술처럼 기술향상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지행동학습유형과 다중요인접근을 활용해야 한다(Lipsey, 1995).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가운데 많은 수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중요인접근 또한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

21) 여기서 부모감독은 주요한 타자와의 결속과 보호라는 개념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론적 배경과 변수 측정부분에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은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별 청소년지원시설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앙단위에서 연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유입예방 및 재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지원시설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단위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이 현 시점에서는 부족하다<sup>22)</sup>.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매매 유입의 위험 요인 중 많은 수가 다른 유사 영역의 요인과 일치한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매매 유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접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 성매매 방지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이하 OJJDP)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프로그램<sup>23)</sup>들은 위기 청소년들안에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장, 연계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의 종합프로그램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복합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의 종합프로그램<sup>24)</sup>은 미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 총 211개가 운영 수록되어 있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미국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 웹사이트 MPG(Model Program Guide)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평가를 통해 검증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에서도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검증

---

22) 국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ecpat.net/> <http://www.depdc.org/> <http://www.childrenofthenight.org/>  
<http://www.juvenilejusticefund.org/>

23) <http://www.ojjdp.gov/> 참조.

24)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최인섭·이성식(2010), 「미국 OJJDP 의 청소년재범예방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사례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검증된 프로그램들은 함께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설계함에 있어, 원거리 위험요인들을 - 성산업의 수요 등-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접위험요인들이 원거리위험요인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Kirby & Fraser, 199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방법론상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성산업의 수요 등과 같은 원거리 위험요인들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보길, 1997,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성별화 과정 :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아, 2010, “시설 퇴소청소년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pp.155-179.
- 기광도, 2011,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2), pp.5-30.
- 기광도·이희길,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6, pp.7-27.
- 김두섭·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신희, 2008, “방임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7(1), pp.93-115.
- 김주희, 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문화포럼』, 14, pp.133-180.
- 김혜원, 2011,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4), pp.301-327.
- 남미애, 2009,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pp.271-306.
- 남미애·홍봉선, 2009, “성매매청소년 교육수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2), pp.63-94.
- 노성호, 2006, “중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모델의 검증”, 『사회과학논총』, 22, pp.57-83.
- 미셸 푸코, 1975,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Surveiller et Punir: La Naissance de la prison』, 나남출판사.
-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20(1), pp.173-202.
- 박성수, 200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 pp.91-121.

- 성용은·조현빈, 2010, “한국 청소년의 성비행 대책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pp.125-166.
- 안경옥, 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49, pp.5-33.
-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정연구”, 여성가족부.
- 유성경·안희정·이소래·오익수, 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이소래·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상준,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8(2), pp.331-353.
- 이상준, 2011,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 위험, 보호요인의 효과: 가출청소년 심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3(2), pp.271-291.
- 이선희, 2009, “여자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1995, “청소년비행론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24, pp.183-204.
- 이성식, 1999, “청소년범죄에 있어 긴장과 통제-확대된 두 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 pp.191-214.
- 이신숙, 2011, “청소년의 학습탄력성요인이 학습적응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pp 1-28.
- 이은주, 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1), pp.147-171.
- 이주영, 2006, “재가출 경험을 통해 본 십대 가출여성의 정체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 이춘화·조아미, 2008, “청소년 성보호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5(1), pp.87-109.
- 이혜원, 2005, “교사용 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감 평가 척도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은·문성호, 2008,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pp.219-241.
-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0, pp.185-213.
- 정소희, 2006,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정익중·김세원, 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pp.197-230.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pp.133-159.

- 정혜원, 2002, “일탈소녀들의 소년원 적응전략”, 『한국청소년연구』, 13(1), pp.5-41.
- 정혜원, 2009,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원, 2011,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조성희·박소영, 2010, “가출경험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7(11), pp. 289-315.
- 최영신, 2006, “여자 비행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과 처우”, 『교정연구』, 31, pp.61-88.
- 한상철, 2009,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분석”, 『미래청소년 학회지』, 6(4), pp. 185-210.
- 한상철, 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pp 125-149.
- 홍봉선, 2002, “청소년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4, pp.79-117.
- 홍봉선, 2010,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처방안”, 『여성과 인권』, 3, pp.8-23.
- 홍봉선·남미애, 2007,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국가청소년 위원회.
- 홍봉선·남미애, 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홍봉선·남미애, 2010,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 [외국문헌]

- Barrett, D., 1998, Young people and prostitution: perpetrators in our mids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12(3), pp.475-487.
-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Ramey, S.L., Shure, M. B.,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pp 131-143.
- DeMan, A. F., 2000, Predictors of adolescent running away behavior,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 An International Journal*, 28(3), 261-267.
- Demuth, S., and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pp.58-82.

- Farrington, D. P., 1978, Family Backgrounds of Aggressive Youth, In L. A. Hersov., & M. Berger, Aggression and Air-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Press.
- Fonagy, P., Steele, M., Higgitt, A, & Target, M., 1992,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2), pp.231-257.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D.C: NASW Press.
- Fraser, M.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pp.129-208.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ight, W., Finet, D., Bamba, S.,& Helton, J., 2009, The beliefs of resilient African-American adolescent mothers transitioning from foster care to independent living: A case-based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1), pp.53-62.
- Hawkins, J. D., Catalano, R. F.,&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pp.64-105.
- Hawkins, J. D., Arthur, M. W., & Catalano, R. F., 1995, Preventing Substance Abuse. In M. Tonry and D. Farrington(Eds.),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19, pp 343-42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me Office, 2004, Paying the price: a consultation paper on prostitution: Home Office
- Jacobsen. D. E., 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pp.250-264.
- Kidd, S., & Shahar, G., 2008, Resilience in Homeless Youth: The Key Role of Self-Este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2), pp.163-172.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pp.10-33). Washington D. C.: Wiley.
- Loeber, R., & Dishion, T. J., 1983, Early predictore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Child Development*, 94, pp.68-98.
- Masten, A., & Garmezy, N., 1985, Risk,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B. Larkin, K., & A.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8, pp.1-52), New York :Plenum Press.
- McLeod, J. D., Kruttschnitt, C., & Dornfeld, M., 1994, Does parenting explain the effects of structural conditions on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A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Social Forces*, 73(2), pp.575-604.
-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One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 Ostrowsky, M. K. & Messner, S. F., 2005,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463-476.
- Pollard, J.A., Hawkins, J.D., &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pp 145-158.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 2001, Correlates of resiliens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irsing Scholarship*, 33(1), pp.33-40.
- Roosa, M. W., 2000, Some thoughts about resilience versus positive development, main effects interactions, and the value of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1, pp.567-569.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pp.316-331.
- Rutter, M., 1990, Psychoos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pp.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9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pp.598-611.
-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Ouston, J., & Smith, A., 1979,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pp 134-157.
- Whitbeck, L., Hoyt, D., Johnson, K., & Chen, X., 2007, Victim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2, pp 721-734.
- Williams, L. M., 2010, Harm and Resilience among Prostituted Teen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Victimization and Survival, *Social Policy & Society*, 9(2), pp243-254.

Wilson, H. W. & Widom, C. S., 2010, The Role of Youth Problem Behaviors in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Prostitution: A Prospective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pp. 210-236.





부  
속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I.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3) 일이 어려워지면 나는 쉽게 포기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말썽이 될 만한 일이나 사람을 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미리 계획을 잘 세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건강을 잘 돌본다 (예: 몸에 좋은 음식 먹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하루에 세끼 식사하기)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2)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3) 친구나 선생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4)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우울한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별 이유 없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잠을 설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가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이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2)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세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용감하고 스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법이나 규율을 어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필요하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5)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약간의 나쁜 행동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를 한다	①	②	③	④
7) 만일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는 반드시 되받아 친다	①	②	③	④
8)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면 나는 언제나 맞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서부터 문제되는 행동 때문에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2) 초등학교 때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부모님(가족)이 학교에 불러간 적이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선배가 나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반드시 어떡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말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와 친한 사람이 내린 틀린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①	②	③	④
5)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나와 친한 선배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저의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성과 만날 때 나의 성적 행동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의 성적인 지식이나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피임하자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이성친구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시도할 때 끝까지 못하게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성행동을 할 때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사귀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사귀는 사람이 스킨십을 요구한다면 싫어도 들어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행동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0)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③
11)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③
12)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의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③

## II. 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7. 다음 문항은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가족)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가족)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가족)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가족)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가족)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가족)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가족)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8. 다음 문항은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거나 심하게 욕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미워하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가끔 나를 너무 무섭게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별로 확인을 안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술을 마셔도 내버려 두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어라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보호자)은 내 기를 살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꾸중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시다	①	②	③	④

### Ⅲ. 성 관련 질문입니다.

9. 이성과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9-1번 문항으로)                      ② 없다



9-1.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것은 몇 살 때였습니까? (            ) 세

9-2. 첫 성관계를 가진 대상은 누구였나요?

- ① 이성 친구   ② 선·후배   ③ 채팅 상대   ④ 조건만남에서 만난 사람   ⑤ 친척  
⑥ 가족   ⑦ 동성   ⑧ 낯선사람   ⑨ 이웃 사람   ⑩ 기타(            )

9-3. 첫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서로 원해서   ② 강제적으로   ③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④ 돈거래를 하고   ⑤ 기타

※ 성매매란 돈이나 물건, 잠자리, 술, 밥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성적행위(예: 키스, 성관계 등)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여러분 주변에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1-2명)   ③ 보통이다(3-5명)   ④ 다소 많다(6-10명)   ⑤ 매우 많다(10명이상)

11. 당신은 성매매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1-1번 문항으로)



11-1. 가출이전에도 성매매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11-1-1번 문항으로)   ② 있다

11-1-1. 가출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매매를 했습니까?

- ① 가출한 첫날   ② 1주일안에   ③ 2주일안에   ④ 3주일안에   ⑤ 1개월안에   ⑥ 2개월안에  
⑦ 3개월안에   ⑧ 4개월안에   ⑨ 5개월안에   ⑩ 6개월안에   ⑪ 기타(            )

11-2.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면, 처음으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            ) 세





**VI. 가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3. 지금까지 가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3-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11page 19번 학교관련 질문으로)



13-1. 있다면, 총 \_\_\_\_\_ 회      13-2. 가장 길게 가출한 기간은 \_\_\_\_\_ 개월

13-3. (가출을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가출을 자주 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 \_\_\_\_\_ )

13-4. 가출 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 \_\_\_\_\_ )

14. 가출 후 나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모두 ✓표를 해 주십시오.

	돈을 주거나 귀 주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었다	필요한 정보를 주었다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가족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교사	①	②	③	④	⑤
가출해서 만난 친구	①	②	③	④	⑤
경찰관	①	②	③	④	⑤
보호시설(쉼터)	①	②	③	④	⑤
1318	①	②	③	④	⑤
채팅남자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 문항은 가출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출	두 번째 가출	가출을 세 번 이상 한 경우 (가장 최근 가출 기준)
1)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2) 가출기간	_____일	_____일	_____일
3) 가출해서 살았던 곳 (중복응답가능, 3개)	<input type="checkbox"/> 여관·모텔 <input type="checkbox"/> 달방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원룸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선후배 집 <input type="checkbox"/> 친척집 <input type="checkbox"/> 가출펜 <input type="checkbox"/> 침 터 <input type="checkbox"/> PC 방 등 <input type="checkbox"/> 빈집, 역전 등 노숙 <input type="checkbox"/> 찜질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여관·모텔 <input type="checkbox"/> 달방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원룸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선후배 집 <input type="checkbox"/> 친척집 <input type="checkbox"/> 가출펜 <input type="checkbox"/> 침 터 <input type="checkbox"/> PC 방 등 <input type="checkbox"/> 빈집, 역전 등 노숙 <input type="checkbox"/> 찜질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여관·모텔 <input type="checkbox"/> 달방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원룸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선후배 집 <input type="checkbox"/> 친척집 <input type="checkbox"/> 가출펜 <input type="checkbox"/> 침 터 <input type="checkbox"/> PC 방 등 <input type="checkbox"/> 빈집, 역전 등 노숙 <input type="checkbox"/> 찜질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4) 가출이후 집에 돌아온 이유 (귀가 이유) (중복응답가능, 3개)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해결되어서 <input type="checkbox"/>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input type="checkbox"/>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 경찰에게 불들려서 <input type="checkbox"/> 친구, 주위사람이 들어가고 해서 <input type="checkbox"/> 아직도 가출 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해결되어서 <input type="checkbox"/>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input type="checkbox"/>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 경찰에게 불들려서 <input type="checkbox"/> 친구, 주위사람이 들어가고 해서 <input type="checkbox"/> 아직도 가출 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돈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해결되어서 <input type="checkbox"/>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input type="checkbox"/>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 경찰에게 불들려서 <input type="checkbox"/> 친구, 주위사람이 들어가고 해서 <input type="checkbox"/> 아직도 가출 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
5) 가출이유 (중복응답 가능, 3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싫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짜워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욕하거나 매려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input type="checkbox"/>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input type="checkbox"/>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input type="checkbox"/>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input type="checkbox"/>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공부가 부담이 돼서 <input type="checkbox"/>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싫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짜워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욕하거나 매려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input type="checkbox"/>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input type="checkbox"/>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input type="checkbox"/>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input type="checkbox"/>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공부가 부담이 돼서 <input type="checkbox"/>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싫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짜워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욕하거나 매려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input type="checkbox"/>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input type="checkbox"/>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input type="checkbox"/>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input type="checkbox"/> 학교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input type="checkbox"/>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input type="checkbox"/>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공부가 부담이 돼서 <input type="checkbox"/>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16. 가출 후 나의 상황은 가출 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나빠졌다	나빠진 편이다	달라진 것 없다	좋아진 편이다	아주 좋아졌다
1) 건강이	①	②	③	④	⑤
2) 마음의 편안한 정도가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상황이	①	②	③	④	⑤
4) 전반적인 생활이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①	②	③	④	⑤
6)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다니기가	①	②	③	④	⑤
9) 자존심이	①	②	③	④	⑤

17. 가출 후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를 해 주십시오.

- ① 아르바이트로 번 돈 ② 이전에 모아둔 돈 ③ 구걸해서 모은 돈 ④ 성매매로 번 돈  
 ⑤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은 돈 ⑥ 친구의 도움으로 받은 돈 ⑦ 선배의 도움으로 받은 돈  
 ⑧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 ⑨ 가출캠의 도움 ⑩ 기타 ( )

18. 가출 후 일해 본 경험은?

- ① 있다(☞ 18-1번 문항으로) ② 없다



18-1 있다면, 일했던 업소를 모두 ✓표를 해 주십시오.

- ① 주유소 ② 편의점 ③ 음식점 ④ 패스트 푸드점 ⑤ 카페  
 ⑥ PC방 ⑦ 당구장 ⑧ 만화방 ⑨ 호프집·소주방  
 ⑩ 비디오방 ⑪ 노래방 ⑫ 단란주점 ⑬ 립싸롱  
 ⑭ 성매매 집결지(예 청량리 588) ⑮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⑯ 티켓다방  
 ⑰ 안마시술소 ⑱ 전단지 ⑲ 주차장도우미 ⑳ 기타( )



23.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공부 ② 학교규칙 ③ 친구관계 ④ 학교선생님관계 ⑤ 선·후배관계 ⑥기타 ( )

24.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하나만 고르시오

- |                           |              |                      |
|---------------------------|--------------|----------------------|
| ① 가출을 해서                  | ②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 ③ 상급학교로 진학할 성적이 안 돼서 |
| ④ 문제행동을 인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서   | ⑤ 다니기 싫어서    |                      |
| ⑥ 교사나 친구, 선배로 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 ⑦ 기타( )      |                      |

**VI. 친한 친구 · 선배 관련 질문입니다.**

25.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매우 친한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5-1. 매우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_\_\_\_\_ 명)

25-2.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3. 그 친구들 중에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

- |                                       |
|---------------------------------------|
| 1) 학교에서 근신,정학 또는 퇴학을 받은 경험 ( _____ 명) |
| 2) 조건만남(원조교제, 성매매) ( _____ 명)         |
| 3) 경찰에 잡혀간 경험 ( _____ 명)              |

25-4. 비행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표기해 주세요.

① 걱정 된다 ② 무섭다 ③ 불쌍하다 ④ 멋있다 ⑤ 부럽다 ⑥ 기타 ( )

26.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선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친한 선배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친한 선배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6-1. 매우 친한 선배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_\_\_\_\_ 명)

26-2. 그 선배들 중에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선배는 얼마나 됩니까?

1) 학교에서 근신,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은 경험 ( _____ 명)
2) 조건만남(원조교제, 성매매) ( _____ 명)
3) 경찰에 잡혀간 경험 ( _____ 명)

**Ⅶ. 기타 질문입니다.**

27.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출하지 않았을 때	가출했을 당시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오)
1) 성폭행 강제로 당하기(성폭력)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2) 심하게 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3)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4) 심하게 놀림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5) 협박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6) 따돌림(왕따)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7)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8) 조건사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9) 조건강요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28.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출하지 않았을 때	가출했을 당시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오)
1) 성관계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2) 조건만남(원조교제)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3) 조건강요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4) 조건사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5) 남을 심하게 때리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6) 패싸움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7)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훔뜯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8)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9) 남을 심하게 놀리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0) 남을 헐박하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1) 다른 친구 따돌림(왕따)시키기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2) 경찰에 잡혀간 경험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3) 앵벌이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4) 유해약물경험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5) 자해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6) 자살시도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17) 폭주(오토바이)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① 없다 ② 있다 _____ 회

**VIII. 가구구성 및 기타 질문입니다.**

29.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른 지방의 직장, 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 하지 않는 가족도 표시하시오)

(☞ 가출한 상태라면 가출이전에 함께 거주했던 가족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친할아버지    ④ 친할머니    ⑤ 친아버지    ⑥ 친어머니  
 ⑦ 새아버지(계부)    ⑧ 새어머니(계모)    ⑨ 형제 또는 자매    ⑩ 기타 친척    ⑪ 복지시설    ⑫ 기타(    )



28-1. 다른 지방의 직장, 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 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인지 쓰시오(    )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Ⅱ)

발행인 김호순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전 화 02)3210-1050  
[www.stop.or.kr](http://www.stop.or.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786-2999)